



2020 July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Dear Lord 주님,

From July 2020, 7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 ①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 ① 통독본문

3년 1독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 ②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 ③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01 JAN  
수 Wed

그에 의해,  
그를 통해,  
그를 위해

By Him,  
Through Him,  
and For Him

### 1 통독본문 Reading Plan

골로새서 Colossians 1장

### 3 새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 4 아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22

내지샘플

## 5 백집기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에 새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지음 받았다는 이 믿음 가운데 더욱 뿌리내리고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 2 6

골로새서 1:9-20

9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쁨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친구약 일독
-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Reading Insight

As Paul and Timothy wrote the epistles to the saints of the new churches in Colossae, they thanked God for their faith and love, and prayed for the growth of their deeply rooted faith that all things are created by Christ and for Christ.

### Colossians 1:9-20

<sup>9</sup> And so, from the day we heard, we have not ceased to pray for you, asking that you may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his will in all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

<sup>10</sup> so as to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Lord, fully pleasing to him, bearing fruit in every good work and increasing in the knowledge of God.

<sup>11</sup> May you be strengthened with all power, according to his glorious might, for all endurance and patience with joy,

<sup>12</sup> giving thanks to the Father, who has qualified you to share in the inheritance of the saints in light.

<sup>13</sup> He has delivered us from the domain of darkness and transferred us to the kingdom of his beloved Son,

<sup>14</sup>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

<sup>15</sup>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sup>16</sup> For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dominions or rulers or authorities—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sup>17</sup> And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sup>18</sup>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He is the beginning, the firstborn from the dead, that in everything he might be preeminent.

<sup>19</sup> For in him all the fullness of God was pleased to dwell,

<sup>20</sup>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to himself all things, whether on earth or in heaven, making peace by the blood of his cross.

### 7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만물은 누구에 의해, 누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16절)  
By whom, through whom, and for whom are all things created? (v. 16) -

만물과 만물이, 하나님과 만물이 어떻게 되는 일은 누구를 통해, 무엇에 의해 가능한 일입니까? (20절)  
Through whom and by what is the harmony among all things and between God and all things possible? (v. 20)

### 8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 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 7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1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심전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예임스 사랑의 교회, 이병훈(A)  
과드시터한인연합감리교회, 조형배(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24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바울의 신년 연설

New Year message by Paul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11월 19일, 에이브러햄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시어도어 파커의 글을 인용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표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 연설은 of, by, For, 이 세 가지의 전치사를 통해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반면 바울은 링컨보다 약 1,800년 전에 by, through, for라는 전치사를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자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새로 세워진 골로새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그분의 우월성과 충분성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들을 포함한 만물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16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분 없이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17절). 비록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의 한 일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참된 현실이 아닙니다. 불의가 실재하지만, 참된 현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며, 그를 통해 만물이 화목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은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분에 의해(by) 다스려지고, 그분을 힘입어(through) 행동하며, 그분을 위해(for) 살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In the midst of Civil War on November 19, 1863, Abraham Lincoln at Gettysburg made the famous speech by quoting from Theodore Parker,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The speech used three prepositions: “of, by and for” to illustrate the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Paul 1,800 years earlier than Lincoln, through three prepositions of “by, through, and for”, taught the believers who Christ was. Paul had a special reason for writing the epistle to the saints of the newly planted church in Colossae. Although they had the faith, they did not yet fully understand what it meant to believe in Christ and the sovereignty and sufficiency of Christ. All things including all worldly power and authority were created by Christ and through Christ and for Christ. (v. 16)

We should not forget that Christ was the king of the kings though He died on the cross defenselessly as a young man. All things in the world we live cannot exist without Christ. (v. 17) There exist unrighteous things in the world as if the world is taken over by evil power but that is not true reality. In spite of the existence of unrighteousness, true reality is that Jesus Christ will ultimately rule the world and through Him all things will live in harmony. As we face new year 2020, the faith that we must grab on is that this new year will be ruled by Him, through Him and for Him.



##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4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5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6



25

###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 6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바로가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devotion](http://www.facebook.com/kumcddevotion)

# 혼자서도 문제없다

### 1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가정예배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 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 > 엄마 > 첫째 > 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목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http://www.facebook.com/kumcdevotion)

07

[illegible]

TUESDAY

5

6

7

12

13

14

역대기상  
1 Chronicles  
15장 □

19

20

21

역대기상  
1 Chronicles  
24장 □

26

27

28

역대기하  
2 Chronicles  
2장 □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b>1</b> 역대기상 1 Chronicles 1장 □	<b>2</b> 역대기상 1 Chronicles 2장 □	<b>3</b> 역대기상 1 Chronicles 3장 □	<b>4</b> 역대기상 1 Chronicles 4-5장 □
<b>8</b> 역대기상 1 Chronicles 9장 □	<b>9</b> 역대기상 1 Chronicles 10장 □	<b>10</b> 역대기상 1 Chronicles 11장 □	<b>11</b> 역대기상 1 Chronicles 12장 □
<b>15</b> 역대기상 1 Chronicles 16장 □	<b>16</b> 역대기상 1 Chronicles 17장 □	<b>17</b> 역대기상 1 Chronicles 18-19장 □	<b>18</b> 역대기상 1 Chronicles 20-21장 □
<b>22</b> 역대기상 1 Chronicles 25장 □	<b>23</b> 역대기상 1 Chronicles 26장 □	<b>24</b> 역대기상 1 Chronicles 27-28장 □	<b>25</b> 역대기상 1 Chronicles 29장 □
<b>29</b> 역대기하 2 Chronicles 3장 □	<b>30</b> 역대기하 2 Chronicles 4장 □	<b>31</b> 역대기하 2 Chronicles 5장 □	
		<b>6 June</b>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b>8 August</b>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이야기로 알아보는 역대기

### 역대기는 어떤 책인가?

역대기는 아담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기까지의 계보와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의 통치기를 다루는 역대상과 솔로몬의 통치 이후 왕국 분열과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대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 시대의 사건들’을 의미하는 ‘디베레 하야밈’이라 불리는 역대기는 본래 상하 구별이 없었습니다. 역대기가 상하로 분리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부터였습니다. 70인역에서 ‘생략된 사건들 1’과 ‘생략된 사건들 2’를 의미하는 ‘파랄레이포메논 알파’와 ‘파랄레이포메논 베타’로 불렸던 역대기는,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Vulgate)에서 ‘거룩한 역사의 역대기 전서’와 ‘거룩한 역사의 역대기 후서’로 불리다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서에서 처음으로 ‘역대상’과 ‘역대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 역대기는 언제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해 기록했는가?

역대기는 성전 예배와 율법에 대한 해박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에스라서와 내용상 연속성과 문체상 유사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레위인인 에스라가 기원전

450-430년 경 기록했다는 주장이 교회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기원전 5-4세기는 흔히 포로후기 시대라 불립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한 유다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여호와 신앙에 대한 회의가 강하게 일어나는 등 이스라엘 역사상 정치, 종교, 사회적 혼란이 절정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특히 바벨론에 끌려가 약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한 후 귀환한 유대인들은 파괴된 성전과 폐허 된 예루살렘 성읍을 발견하며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지난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이 믿고 따라야 할 절대자인가 고민하게 됐고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역대기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역대기는 바벨론 유배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고 성전 중심의 역사를 수립해 나가는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역대기와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차이는 무엇인가?**

역대기는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 기록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역대상과 역대하는 비슷한 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성전 예배 갱신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치라는 신명기적 사관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적 관점에서 서술된데 반해, 역대기서는 에스라-느헤미야와 함께 '역대기 사가의 역사'로 구분됩니다.

신명기 사관은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들의 역사관을 의미합니다. 신명기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라야 할 유일신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써 모세를 통해 여호와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기보다 역사상 일어났던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추구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대기 사가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역사를 기록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다윗-예루살렘 중심의 사관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서와 열왕

기서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반면, 역대기서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2장 9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다윗의 계보가 룻기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구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역시 다윗 왕조를 중시하는 역대기 사가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역대기는 다윗을 어떤 인물로 기록하고 있는가?**

역대기는 열왕기와 달리 이스라엘의 황금시대였던 다윗-솔로몬 시대를 이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임금으로 등극한 후 뒤늦게 민심을 얻은 다윗과 갈등을 벌이며 왕권을 둘러싼 투쟁을 벌였던 과정을 소상히 전달하고 있는 사무엘서와 달리,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다윗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로 시작된다(대상 11:1)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다윗이 사울과의 권력투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됐다는 식으로 묘사한 것은 다윗을 이상적인 인물로 묘사하기 위한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다윗의 이상화는 다윗의 통치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해 '신정(神政)'을 실시하기로 하셨다는 것이 역대기의 입장입니다. 신정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도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희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이상화하려는 노력은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에게 불리한 전승들을 모조리 생략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역대기가 다윗이 잘못된 일을 기록한 유일한 경우는 인구조사가 초래한 재앙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 인구조사를 하도록 시켰다”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사가의 입장에서는 솔로몬 역시 제2의 다윗입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출애굽 사건의 역사를 회고하는 반면 역대기 사가가 전하는 솔로몬의 기도는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호소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처럼 역대기 사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를 구사했던 솔로몬 시대에 대한 기록에서조차 다윗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강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 전개되는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르호보암부터 요시아에 이르는 유다 왕들에게는 다윗이나 솔로몬에 대한 기록에서 보여지는 이상화 경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각각의 왕들이 경건하게 살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왕과 왕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인과응보 사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 참조문헌

해설성경, 대한기독교서회  
왕대일, 신앙공동체를 위한 구약성서이해, 성서연구사

01 JUL  
수 Wed

##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How numerous  
the names of people  
are!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1장



새528장(통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역대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에 쓴 역사책이다. 우리가 역사 책을 쓴다면 무엇을 기록하려 할까요? 역대기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지루하더라도 사람의 이름들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

### 역대기상 1:1-27

- 1 아담, 셋, 에노스,
- 2 게난, 마할랄렐, 야렛,
- 3 에녹, 므두셀라, 라멕,
- 4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 5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 6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 7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더라
- 8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 9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 10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열결이며
- 11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뫼와 르하뫼와 납두힘과
- 12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 13 가나안은 말아들 시돈과 헛을 낳고
- 14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 15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 16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 17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앓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홀과 게텔과 메섹이라
- 18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 19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 때에 땅이 나뉘었음이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욥단이며
- 20 욥단이 알모닷과 셀렘과 하살마뫼와 예라와
- 21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 22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 23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욥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 24 셈, 아르박삿, 셀라,
- 25 에벨, 벨렉, 르우,
- 26 스룩, 나홀, 데라,
- 27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 Reading insight

Chronicles is a history book written while Israelites were in exile. If we were to write a history book what would we want to record? The Chronicles begin recording the names of the people. Though it would be mundane, we must finish reading the names of the people.

### 1 Chronicles 1:1-27

- <sup>1</sup> Adam, Seth, Enosh;
- <sup>2</sup> Kenan, Mahalalel, Jared;
- <sup>3</sup> Enoch, Methuselah, Lamech;
- <sup>4</sup> Noah, Shem, Ham, and Japheth.
- <sup>5</sup> The sons of Japheth: Gomer, Magog, Madai, Javan, Tubal, Meshech, and Tiras.
- <sup>6</sup> The sons of Gomer: Ashkenaz, Riphath, and Togarmah.
- <sup>7</sup> The sons of Javan: Elishah, Tarshish, Kittim, and Rodanim.
- <sup>8</sup> The sons of Ham: Cush, Egypt, Put, and Canaan.
- <sup>9</sup> The sons of Cush: Seba, Havilah, Sabta, Raama, and Sabteca. The sons of Raamah: Sheba and Dedan.
- <sup>10</sup> Cush fathered Nimrod. He was the first on earth to be a mighty man.
- <sup>11</sup> Egypt fathered Ludim, Anamim, Lehabim, Naphtuhim,
- <sup>12</sup> Pathrusim, Casluhim (from whom the Philistines came), and Caphtorim.
- <sup>13</sup> Canaan fathered Sidon his firstborn and Heth,
- <sup>14</sup> and the Jebusites, the Amorites, the Girgashites,
- <sup>15</sup> the Hivites, the Arkites, the Sinites,
- <sup>16</sup> the Arvadites, the Zemarites, and the Hamathites.
- <sup>17</sup> The sons of Shem: Elam, Asshur, Arpachshad, Lud, and Aram. And the sons of Aram: Uz, Hul, Gether, and Meshech.
- <sup>18</sup> Arpachshad fathered Shelah, and Shelah fathered Eber.
- <sup>19</sup> To Eber were born two sons: the name of the one was Peleg (for in his days the earth was divided), and his brother's name was Joktan.
- <sup>20</sup> Joktan fathered Almodad, Sheleph, Hazarmaveth, Jerah,
- <sup>21</sup> Hadoram, Uzal, Diklah,
- <sup>22</sup> Obal, Abimael, Sheba,
- <sup>23</sup> Ophir, Havilah, and Jobab; all these were the sons of Joktan.
- <sup>24</sup> Shem, Arpachshad, Shelah;
- <sup>25</sup> Eber, Peleg, Reu;
- <sup>26</sup> Serug, Nahor, Terah;
- <sup>27</sup> Abram, that is, Abraham.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역대기의 처음 구절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나요? (1절)

What does The Book of Chronicles record as the first sentence? (v. 1)

역대기 1장은 사람의 이름을 쭉 나열하다가 한 번 호흡을 멈춥니다. 누구에게서 멈추나요? (27절)

As the first chapter of the Book of Chronicles proceeds with the names of the people, it comes to pause to take a breath, at whose name does it pause? (v. 27)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집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웨체스터중앙교회, 김철식(NY)  
퀸즈중앙감리교회, 이요섭(NY)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사람이 역사입니다. 사람이 소망입니다.

People are the history. People are the hope.

우리가 <역대기>란 이름으로 내 인생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어떤 기록부터 시작할 것 같은가요? 아마 사건부터 기록할 것입니다. 역사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1절 “아담, 셋, 에노스...” 그리고 27-28절,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사람들의 이름이 꼭 이어지다가, 27-28절에서 “아브람, 곧 아브라함”까지 잇고는 한 호흡 쉽니다. 역대기는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자신들의 역사를 새로이 쓰면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일까요?

역대기는 역사의 중심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의 기록이 그들 역사의 핵심임을 선언합니다.

사람이 역사입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가요?

If we were to write our autobiography in the name of <Chronicles>, what would we start recording first? Most likely we would begin with the recording of events. Because we think history is about event. But the authors of the Chronicles did not report the events.

The first verse of Chapter 1 of 1 Chronicles begins with “Adam, Seth, Enosh” and continues in verses 27 and 28, “and Abram (that is, Abraham). The sons of Abraham: Isaac and Ishmael.”

The names of people continue but after verses 27 and 28, “and Abram (That is, Abraham)” were said, it paused to take a breath. The Chronicles did not start with events. They recorded the names of the people. As the people of Israel were recorded anew their history, why did they bring up people in front rather than historical events?

The authors of the Chronicles asserted that the core value of history is not the historical events but the people. They proclaim that the people of God produce the events of God and the record of the people of God is the core of history.

People are the history. People are the hope. What kind of history do you think you are producing today? What kind of people do you think we should be if we wanted to be recorded in the history book of Go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02 JUL  
목 Thu

##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과 유다, 그리고 다윗

Twelve sons  
of Israel, and Judah  
and David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2장



새540장(통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2장은 이삭의 아들 중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으로 시작된다. 그 런데 첫째 아들 르우벤을 제치고 넷째인 유다의 아들들이 먼저 언급 된다. 또한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 역대기상 2:1-12

1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 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불론과

2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3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 준 자요 유다 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 호와께서 죽이셨고

4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 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5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6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 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7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 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8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9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므엘과 람과 글루배라

10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 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11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12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 Reading insight

Chapter 2 begins with one of two sons of Isaac, that is, Jacob and the names of his twelve sons. But the Chapter does not begin with the oldest son Reuben of Jacob and his sons but the fourth son's name, Judah was mentioned first. And the name Israel is used instead of Jacob.

### 1 Chronicles 2:1-12

**1** These are the sons of Israel: Reuben, Simeon, Levi, Judah, Issachar, Zebulun,

**2** Dan, Joseph, Benjamin, Naphtali, Gad, and Asher.

**3** The sons of Judah: Er, Onan and Shelah; these three Bathshua the Canaanite bore to him. Now Er, Judah's firstborn,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he put him to death.

**4** His daughter-in-law Tamar also bore him Perez and Zerah. Judah had five sons in all.

**5** The sons of Perez: Hezron and Hamul.

**6** The sons of Zerah: Zimri, Ethan, Heman, Calcol, and Dara, five in all.

**7** The son of Carmi: Achan, the troubler of Israel, who broke faith in the matter of the devoted thing;

**8** and Ethan's son was Azariah.

**9** The sons of Hezron that were born to him: Jerahmeel, Ram, and Chelubai.

**10** Ram fathered Amminadab, and Amminadab fathered Nahshon, prince of the sons of Judah.

**11** Nahshon fathered Salmon, Salmon fathered Boaz,

**12** Boaz fathered Obed, Obed fathered Jesse.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야곱, 곧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나서, 열두 아들 중 누구의 족보부터 기록하고 있나요? (3절)

After mentioning the names of Jacob's twelve sons, whose genealogy is recorded first among the twelve sons? (v. 3)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다. 몇번째 아들인가? (15절)

David was the son of Jesse. How many sons of Jesse were older than David? (v. 15)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하트포드한인교회, 이재삼(CT)  
후러싱제일교회, 김정호(NY)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It is Israel, not Jacob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하면서 이어지는 이름들 중,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야곱은 없고 오히려 생소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기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왜 굳이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일부러 쓰고 있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창세기 32:28).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야곱은 하나님을 꼭 붙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에게 주었던 것이죠. 야곱의 신앙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꼭 붙든 사람.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이름을 주신다면, 어떤 이름일 것 같은가요? 시몬에게 예수님은 베드로(흔들림 없는 반석)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름을 받고 싶으신가요? 크리스천이란 이름은 어떤가요? 우리 모두가 크리스천이란 이름을 지킬 줄 알고 살면 좋겠습니다.

Among the names continued after Isaac whose father was Abraham, there is no mention of familiar name to us, Jacob but unfamiliar name showed up. The verse 1 of Chapter 2 begins like this, “These were the sons of Israel...” It was not wrong because the name <Israel> was given by God to Jacob. But the name <Israel> was used whereas Jacob was not even mentioned and it appears to be intentional. I have a question. Why did the authors of the Chronicles use the name <Israel> instead of Jacob intentionally?

The name Israel was given by God. “Your name will no longer be Jacob, but Israel, because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with men and have overcome.” (Genesis 32:28) As Jacob wrestled with the angel of God, Jacob realized that the only way to survive was to grab on to God and he was able to do that. And God gave that name to Jacob. If we can summarize Jacob’s faith journey it may boil down to “The man who grabbed firmly onto God.” What kind of a name do you think God would bestow to you if a name is given based on the faith journey of yourself? As Jesus gave Simon his disciple the name <A rock unshakable>, what kind of name do you wish to receive? How about Christian? I wish and hope that we all could live our lives worthy of keeping the name Christian.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03 JUL  
금 Fri

## 스룹바벨과 그 아들들까지 이어지는 족보

The genealogy  
continuing to  
Zerubbabel and  
his sons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3장



새201장(통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3장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름들, 그리고 솔로몬에서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그리고 그 유명한 스룹바벨까지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족보의 연결점이 빠르다. 마치 스룹바벨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듯합니다. 스룹바벨은 누구일까 궁금합니다.

### 역대기상 3:10-24

- 10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 11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 12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 13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 14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 15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 16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 17 사로잡혀 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 18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뵤요
- 19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므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 20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 21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 22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 23 느아랴의 아들은 예료에내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 24 예료에내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 Reading insight

Chapter 3 mentions the names of David and Solomon and from Solomon to Jehoiakin who was taken to exile as a prisoner and to the famous name of Zerubbabel. The sequence of genealogy was accelerated. Zerubbabel appeared to be an important figure. I am anxious to find out who Zerubbabel was.

### 1 Chronicles 3:10–24

**10** The son of Solomon was Rehoboam, Abijah his son, Asa his son, Jehoshaphat his son,

**11** Joram his son, Ahaziah his son, Joash his son,

**12** Amaziah his son, Azariah his son, Jotham his son,

**13** Ahaz his son, Hezekiah his son, Manasseh his son,

**14** Amon his son, Josiah his son.

**15** The sons of Josiah: Johanan the firstborn, the second Jehoiakim, the third Zedekiah, the fourth Shallum.

**16** The descendants of Jehoiakim: Jeconiah his son, Zedekiah his son;

**17** and the sons of Jeconiah, the captive: Shealtiel his son,

**18** Malchiram, Pedaiah, Shenazzar, Jekamiah, Hoshama and Nedabiah;

**19** and the sons of Pedaiah: Zerubbabel and Shimei; and the sons of Zerubbabel: Meshullam and Hananiah, and Shelomith was their sister;

**20** and Hashubah, Ohel, Berechiah, Hasadiah, and Jushab-hesed, five.

**21** The sons of Hananiah: Pelatiah and Jeshaiah, his son Rephaiah, his son Arnan, his son Obadiah, his son Shecaniah.

**22** The son of Shecaniah: Shemaiah. And the sons of Shemaiah: Hattush, Igah, Bariah, Neariah, and Shaphat, six.

**23** The sons of Neariah: Elioenai, Hizkiah, and Azrikam, three.

**24** The sons of Elioenai: Hodaviah, Eliashib, Pelaiah, Akkub, Johanan, Delaiah, and Anani, seven.

## 말씀 속으로

### Engaging with Words

다윗은 두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어디와 어디인가요? (4절)

David reigned Israel in two different places. Where were those places? (v.4)

스룹바벨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19절). 참고로 에스라서는 스알디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 (에스라 3:2, 8).

Whose son was Zerubbabel? (v. 19) As a reference, in the book of Ezra (Ezra 3:2, 8) he was introduced as son of Shealtiel.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버림행한인연합감리교회, 지홍일(AL)  
헌스빌감리교회, (AL)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사람을 진정 살리는 길, 예배

A way to truly save people: worship

죽보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을 텐데, 연결고리가 단순해진다. 아브라함부터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에서 다윗까지. 그리고 솔로몬과 그 이후 이어지는, 우리들에게 조금은 익숙한 왕들의 이름들과 포로로 잡혀간 여호아긴, 그리고 여호아긴의 손자 스룹바벨. 마치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아담부터 스룹바벨까지 먼저 짚어야 함을 중요시한 것처럼. 그러면, 스룹바벨은 누구인가요? 스룹바벨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고레스왕이 “고레스 칙령”(역대하 36:23)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였을 때, 1차로 귀환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영적 리더입니다. 성전 건축은 주전 535년부터 시작했다가(에스라 3:8) 방해로 중지되었고, 예언자 학개와 스가라가 귀환하고 나서 520년부터 다시 시작해서 516년에 완성합니다(에스라 6:13-15).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세워 나가는 일,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말씀 읽기, 제자훈련, 구제 등 많은 교회의 사역도, 예배가 없는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한복음 2:19).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요한복음 4:23).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The genealogy must have contained many names but the sequence in the book of Chronicles is hasty and simple. From Abraham to Jacob Israel, from Judah to David, from Solomon to subsequent kings whose names are somewhat familiar to us, Jehoiakin who was the prisoner taken to exile, and Zerubbabel the grandson of Jehoiakin as if the authors of the Chronicles took a special care of the period from Adam to Zerubbabel.

Then who was Zerubbabel? As King Cyrus of Persia who had earlier defeated Israel issued the “Decree of Cyrus” (2 Chronicles 36:23) that allowed the people of Israel to return to rebuild the temple, Zerubbabel was the spiritual leader of Israelites who returned to Israel and became the first group to begin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began in 535 BC and was stopped due to well-planned opposition of the enemies (Ezra 3:8), and restarted in 520 BC when the Prophets Haggai and Zechariah had returned to Jerusalem and completed in 516 BC (Ezra 6:13-15).

The core of rebuilding was to reestablish that the Israelites were the people of God and to restore the worship at the temple. Bible reading, disciple training, helping the poor, and many other ministries will not stand without worship. Spiritual communication with God is the key. Worship without spiritual communication with God is dead worship.

Jesus said in John 2:19, “Destroy this temple, and I will raise it again in three days,” and also said in John 4:23, “Yet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when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Are you worshipping in spirit and truth?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04 JUL  
토 Sat

## 야베스의 기도, 왜 기록했까?

The prayer  
of Yabez,  
why is it recorded?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4-5장



새365장(통484장)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야베스에 대한 소개와 야베스의 기도는 생동맞게 4장에 기록됩니다. 유다의 아들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 연결도 없이 야베스가 등장합니다. 왜 역대기 기록자는 야베스를 등장시켰을까요?

### 역대기상 4:1-10

- 1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 2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매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 3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 4 그들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홀의 소생이며
- 5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홀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 6 나아라는 그에게 아훗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아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 7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 8 고스는 아눅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 9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 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 Reading insight

Out of blue, the introduction and prayer of Yabez are recorded in Chapter 4. While mentioning the sons of Judah, without disclosing who his father was and without any connection, all of a sudden, Yabez appeared on the stage. Why do you think the authors of the Chronicles suddenly brought out Yabez?

### 1 Chronicles 4:1-10

**1** The sons of Judah: Perez, Hezron, Carmi, Hur, and Shobal.

**2** Reaiah the son of Shobal fathered Jahath, and Jahath fathered Ahumai and Lahad. These were the clans of the Zorathites.

**3** These were the sons of Etam: Jezreel, Ishma, and Idbash; and the name of their sister was Hazzelelponi,

**4** and Penuel fathered Gedor, and Ezer fathered Hushah. These were the sons of Hur, the firstborn of Ephrathah, the father of Bethlehem.

**5** Ashhur, the father of Tekoa, had two wives, Helah and Naarah;

**6** Naarah bore him Ahuzzam, Hepher, Temeni, and Haahashtari. These were the sons of Naarah.

**7** The sons of Helah: Zereth, Izhar, and Ethnan.

**8** Koz fathered Anub, Zobebah, and the clans of Aharhel, the son of Harum.

**9** Jabez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and his mother called his name Jabez, saying, "Because I bore him in pain."

**10** Jabez called upon the God of Israel, saying, "Oh that you would bless me and enlarge my border, and that your hand might be with me, and that you would keep me from harm so that it might not bring me pain!" And God granted what he asked.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야베스’란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9절)

What kind of meaning does the name Yabez carry? (v. 9)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10절)

What is the essence of Yabez's prayer? (v. 10)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 엄성일(NC)  
노크로스한인교회, 이정희(G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복을 구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

The prayer imploring blessing is a good prayer!

역대기 4장은 유다의 아들들, 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야베스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들이 누구인지, 언급이 없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에 그 안에 넣은 것은 분명한데, 왜 야베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서 귀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닳았으면 하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 해서 태어날 때는 순탄치가 않았지만, 과거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불행을 안고 태어났지만, 그가 존경을 받은 사람이 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느냐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엔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10절). 그런데, 야베스는 구체적으로 복을 구합니다. 내 지경을 넓혀 달라, 단순히 재산을 늘려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땅을 넓혀 달라, 곧, 감당할 역량을 키워 달라고 한 것이 첫째. 둘째는 불행을 막아 주셔서, 태어날 때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이제는 아무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축복을 구하는 기도는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절실한 기도가 축복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Chapter 4 records the names of sons of Judah and the genealogy of Judah but out of blue Yabez is introduced. There is no mention of who his father was or who his son was. He is included because he was apparently a part of the tribe of Judah but why is he mentioned at all?

Yabez was valued dear among his brothers. It meant that he was coveted and was a role model. His name had a meaning of 'pain' so it implied that his birth was not smooth but it doesn't matter because his past was no concern. Though he was born with no prestige at all, there was one reason why he became a man of respect. It was because he was the man of prayer.

The issue is what is the content of his prayer to God. There is a core in the prayers of Yabez. He cried out, “Oh, that you would bless me and -- --.” (4:10) Then Yabez prayed for something concrete. He prayed God to enlarge his territory. Not simply praying for more fortunes, he was praying for large enough territory to manage, that is, he was praying for more and better capability to manage the enlarged territory, that was his first prayer. The second prayer was to keep him from harm so that he would be free from pain. He asked God that no one will suffer the pain that his mother experienced when he was born.

We need to be specific when we pray. The prayer imploring blessing is not a bad prayer. The desperate prayer imploring blessing is also what God wants to hear. There is another important thing in prayer. When we pray, we need to have faith that our prayer would be really heard by God. What kind of mindset do you have and what are you praying now?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영성관리에는 결코 방학이 없습니다

김지성 목사 (글로벌 선교교회, CA)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성은 증명이라는 과정을 통해 입증됩니다. 사람의 호흡을 통해 공기의 존재가 증명되며, 나뭇잎의 흔들림을 통해 바람의 존재가 증명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영에 의한 변화를 통해서 영의 존재는 또한 증명됩니다. 그러나 조금 진지하게 사람에 대해서 접근해 보는 이가 있다면 이 땅에서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이라는데 동의합니다.

대중적인 저술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유명한 김정운 교수라는 분의 어느 날 칼럼에 사람의 변화에 대한 이론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심리학자이다. 심리학의 발생지인 독일에 서 13년간의 유학 생활을 포함해 30년째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이런 내가 요즈음에 내린 결론이다. 철든 이후 내 성격은 바뀌지 않았다. 바꿀 수도 없다. 그런데도 서점가의 수많은 성공처세서들은 자꾸 너 자신을 바꾸라고 한다. 그런 책을 읽으며 수없이 자학한다고 성격이 고쳐질 리 만무하건만, 아직도 그 어설픈 미국식 성공처세서들은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내려오



지 않고 있다. 각종 리더십 이론은 한 술 더 뜬다. 온갖 좋은 이야기는 다 모아 놓고 나한테 성인군자가 되란다. 책임자로서 내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처럼 쌓여가는데 내 성격까지 고쳐서 도인이 되란다. 리더로서의 책임보다 내 성격을 고치느라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 정말 미칠 노릇이다.”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로서 변화에 대한 상당한 이론을 습득하셨을 터인데 자신을 살펴보면 그는 결코 변화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일종의 자학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람은 변화하기 불가능한 존재일까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사람의 변화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집과 편견에 눌러있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사람을 사랑하며,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바뀌었던 수많은 사례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들은 무엇에 의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의 회복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영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으면 결코 변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나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를 통해 결론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곧 영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존재를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영적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영적 관리에 힘쓰는 일을 영성 관리로 칭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와 금식에 힘썼습니다. 영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진다는 명제를 결코 등한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7월과 8월은 훈련 사역과 갖가지 모임이 방학하는 기간입니다. 자칫 방학을 영적인 삶을 잠시 내려놓는 기간으로 착각하지 않을까 몹시 염려됩니다. 방학은 프로그램만을 쉬는 것입니다. 영성 관리에는 결코 방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이 손상되면 치명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영성을 관리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06 JUL  
월 Mon

##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도 알고 있는가?

Do you know  
where the Levites  
settled?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6장



새455장(통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역대기 6장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는 중에 레위 지파의 이름, 특히 대제사장이 레위에서 아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여호사닥의 이름까지 기록한다.

### 역대기상 6:54-65

**54**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계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55**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56**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57**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립나와 그 초원과 야달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58**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59** 아산과 그 초원과 뽀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60**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열셋이었더라

**61**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열 성읍을 주었고

**62**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잇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열세 성읍을 주었고

**63**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열두 성읍을 주었더라

**64**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65**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 Reading insight

As Chapter 6 recorded the genealogy of twelve tribes of Israel, it included the Levite tribe, especially high priest named Aaron from Levi and the name called Jehozadak who was exiled as a prisoner.

### 1 Chronicles 6:54-65

**54** These are their dwelling places according to their settlements within their borders: to the sons of Aaron of the clans of Kohathites, for theirs was the first lot,

**55** to them they gave Hebron in the land of Judah and its surrounding pasturelands,

**56** but the fields of the city and its villages they gave to Caleb the son of Jephunneh.

**57** To the sons of Aaron they gave the cities of refuge: Hebron, Libnah with its pasturelands, Jattir, Eshtemoa with its pasturelands,

**58** Hilen with its pasturelands, Debir with its pasturelands,

**59** Ashan with its pasturelands, and Beth-shemesh with its pasturelands;

**60** and from the tribe of Benjamin, Gibeon, Geba with its pasturelands, Alemeth with its pasturelands, and Anathoth with its pasturelands. All their cities throughout their clans were thirteen.

**61** To the rest of the Kohathites were given by lot out of the clan of the tribe, out of the half-tribe, the half of Manasseh, ten cities.

**62** To the Gershomites according to their clans were allotted thirteen cities out of the tribes of Issachar, Asher, Naphtali and Manasseh in Bashan.

**63** To the Merarites according to their clans were allotted twelve cities out of the tribes of Reuben, Gad, and Zebulun.

**64** So the people of Israel gave the Levites the cities with their pasturelands.

**65** They gave by lot out of the tribes of Judah, Simeon, and Benjamin these cities that are mentioned by name.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레위의 세 아들 이름은 무엇인가요? (54, 62, 63절)

What are the names of three sons of Levi? (6:54, 62, 63)

아론 자손은 받은 성읍은 몇 개인가요? (60절)

How many towns did the descendants of Aaron receive? (6:60)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한인감리교회, 남성원(GA)  
라그레인지 KUMC, 김형렬(GA)  
목회자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폐허를 다시 목초지로!

Turning the ruin back to the pastureland!

역대기는 사람들의 이름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읍들의 이름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도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제사장의 가문인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은 총 열세 성읍인데,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읍들의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목초지라는 말을 항상 붙입니다. “립나와 그 목초지”(57절). 왜 “목초지”라고 언급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7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면서 살던 각 성읍을 기억했습니다. 그 성읍들의 이름에 더하여 목초지까지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벧세메스와 그 목초지”(59절).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빼앗긴 벧겔가 돌아왔던 성읍 벧세메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벧세메스란 이름을 찾긴 찾았는데 주변은 목초지가 아니라 다 폐허입니다.

역대기 역사를 읽는 레위의 자손들에게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다시 목초지로 일궈내자.” 성전을 짓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던 성읍도 목초지로 일궈내는 꿈... 폐허처럼 잊혀진 곳,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현장을 목초지로 일궈내라고 하십니까?

The book of Chronicles recorded not only the names of people but also the names of towns in detail. All the names of settlements of Levites are recorded. For example, the descendants of the high priest Aaron had received thirteen towns and all the names of 13 towns were recorded. Not only the names of the towns were recorded but the word “pastureland” always accompanied each town. For example, “Libnah with its pasturelands” (6:57) Why was pastureland added to each town?

Israelites returned home after 70 years in exile. 70 years was not a short period. Then someone remembered the towns where the descendants of Levites lived while serving Israel as priests. It was recorded that in addition to the names of each town, pasturelands were added. “Beth Shemesh and the pasturelands” (6:59) During the period of the high priest Elijah, the Ark that was lost at the war against Philistines was returned to the town “Beth Shemesh”. But when Israelites returned from exile, they found a town called Beth Shemesh but the surrounding area of the town was not pasturelands but ruins.

Imagine a picture that was engrained in the minds of the descendants of Levites when they read the history of the Chronicles. “Let’s rebuild the pasturelands.”— It was their dream not only to rebuild the temple and restore the worship at the temple, but also to rebuild the towns that they used to live into pasturelands... Forgotten land as ruins, what part of your life do you think God would command you today to rebuild into pasturelan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07 JUL  
화 Tue

## 용감한 용사들이 많았다

There were many  
mighty warriors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7-8장



새353장(통391장)  
십자가 군병 되어서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역대기 7-8장은 나머지 지파들, 잇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자손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몇 지파에는 족보뿐만 아니라 용감한 용사들의 숫자를 기록합니다. 역대기 역사가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궁금해집니다.

### 역대기상 7:1-12

- 1 잇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숨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 2 돌라의 아들들은 웃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매와 입삼과 스므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효가 이만 이천육백 명이었더라
- 3 웃시의 아들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잇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 4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삼만 육천 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 5 그의 형제 잇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팔만 칠천 명이었더라
- 6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 7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웃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이만 이천삼십사 명이며
- 8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내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멧이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리하며
- 9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이만 이백 명이며
- 10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 11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만 칠천이백 명이며
- 12 일의 아들은 습빔과 흠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 Reading insight

Chapter 7 and 8 of 1 Chronicles records the names of the descendants of the remaining tribes: Issachar, Benjamin, Naphtali, Manasseh, Ephraim, and Asher. But as the genealogy of several tribes is mentioned it says that those tribes had also many brave warriors. I am curious why the authors of the Chronicles recorded such warriors.

### 1 Chronicles 7:1-12

**1** The sons of Issachar: Tola, Puah, Jashub, and Shimron, four.

**2** The sons of Tola: Uzzi, Rephaiah, Jeriel, Jahmai, Ibsam, and Shemuel, heads of their fathers' houses, namely of Tola, mighty warriors of their generations, their number in the days of David being 22,600.

**3** The son of Uzzi: Izrahiah. And the sons of Izrahiah: Michael, Obadiah, Joel, and Isshiah, all five of them were chief men.

**4** And along with them, by their generations, according to their fathers' houses, were units of the army for war, 36,000, for they had many wives and sons.

**5** Their kinsmen belonging to all the clans of Issachar were in all 87,000 mighty warriors, enrolled by genealogy.

**6** The sons of Benjamin: Bela, Becher, and Jediael, three.

**7** The sons of Bela: Ezbon, Uzzi, Uzziel, Jerimoth, and Iri, five, heads of fathers' houses, mighty warriors. And their enrollment by genealogies was 22,034.

**8** The sons of Becher: Zemirah, Joash, Eliezer, Elioenai, Omri, Jeremoth, Abijah, Anathoth, and Alemeth. All these were the sons of Becher.

**9** And their enrollment by genealogies, according to their generations, as heads of their fathers' houses, mighty warriors, was 20,200.

**10** The son of Jediael: Bilhan. And the sons of Bilhan: Jeush, Benjamin, Ehud, Chenaanah, Zethan, Tarshish, and Ahishahar.

**11** All these were the sons of Jediael according to the heads of their fathers' houses, mighty warriors, 17,200, able to go to war.

**12** And Shuppim and Huphim were the sons of Ir, Hushim the son of Aher.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잇사갈 지파에 속한 형제들, 곧 용감한 군사들의 숫자는 모두 몇 명인가요? (5절)

How many were fighting men of Issachar in the tribe? (7:5)

지파의 족보만 기록하지 않고, 용감한 군인들의 숫자를 기록합니다. 왜 그리했을까요?

Not only the genealogy of the tribes but also the number of warriors were recorded, why do you think they did tha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슈가힐한인교회, 김경곤(GA)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송희섭(G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크리스천도 용사다!

Christians are also fighting men!

열두 지파의 족보 이름들을 기록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잇사갈, 베냐민, 아셀 지파의 족보에서만 특별히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의 수는…” (2절). 질문이 생깁니다. 족보만 기록하지 않고, 많은 용감한 군사들이 있었다고 왜 기록했는지 궁금합니다.

시온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깨는 축 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잊지 않습니다. 각 지파마다 유능한 용사들이 많았다는 것을. 더구나 핵심 지파도 아닌 잇사갈, 베냐민, 아셀 지파에.

“용감하다”라고 하는 표현된 단어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오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을 세울 때 “유능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면, 그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모습이 담겨 있나요?

오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교회에서 속회를 맡으시는 속장님이 보통은 10명에서 15명을 이끅니다. 우리 중엔 100명, 또는 1,000명을 이끄는 기업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량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As the genealogy of twelve tribes were recorded, mysteriously something special was mentioned for the genealogy of three tribes; Issachar, Benjamin and Asher. “The number of the fighting men …” (1 Chronicles 7:2) I have a question. The authors of the Chronicles did not just report the genealogy but specifically disclosed that there were many fighting men. Why did they record such? I am curious.

The shoulders of the Israelites returning to their motherland Zion must have felt heavy. But they did not forget. There were many fighting men in their tribes. The tribes of Issachar, Benjamin and Asher were not even the largest or most powerful.

The word, “fighting” is similar in meaning to the word “capable” used by Moses in Exodus when he assigned capable men as judges to manage groups of thousands, hundreds, and fifties. When we mention the word Christian, what kind of image is imbedded in it?

Fifty, hundreds, thousands…. At a typical United Methodist Church, a cell leader is responsible for about 10~15 members. And some members of the church may supervise 100 and 1,000 employees at their business. What kind of capability do you think God has in mind for you? I pray and bless that you would hear the mind of Go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08 JUL  
수 Wed

## 마지막으로 기록한 족보 명단

The last genealogy  
list recorded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9장



새90장(통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9장까지의 족보에는 아담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까지 기록된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단으로 매듭을 짓는다. 예루살렘 성전을 역사의 중심으로 잡은 이유가 궁금하다.

### 역대기상 9:1-11

**1**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2**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3**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4**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훗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5**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말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6**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육백구십 명이요

**7**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핫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므술람의 아들 살루요

**8**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웃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댜의 아들 무술람이요

**9**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구백 오십육 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10**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11**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므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므라웃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 Reading insight

Up to Chapter 9 of 1 Chronicles the genealogy of Israelites from Adam to those returned from exile is recorded. Especially the list of people settled in Jerusalem is reported. And it ends with the list of people serving at the temple in Jerusalem. I am curious why the temple of Jerusalem was chosen as the center of history.

### 1 Chronicles 9:1-11

**1** So all Israel was recorded in genealogies, and these are written in the Book of the Kings of Israel. And Judah was taken into exile in Babylon because of their breach of faith.

**2** Now the first to dwell again in their possessions in their cities were Israel, the priests, the Levites, and the temple servants.

**3** And some of the people of Judah, Benjamin, Ephraim, and Manasseh lived in Jerusalem:

**4** Uthai the son of Ammihud, son of Omri, son of Imri, son of Bani, from the sons of Perez the son of Judah.

**5** And of the Shilonites: Asaiah the firstborn, and his sons.

**6** Of the sons of Zerah: Jeuel and their kinsmen, 690.

**7** Of the Benjaminites: Sallu the son of Meshullam, son of Hodaviah, son of Hassenuah,

**8** Ibneiah the son of Jeroham, Elah the son of Uzzi, son of Michri, and Meshullam the son of Shephatiah, son of Reuel, son of Ibnijah;

**9** and their kinsmen according to their generations, . All these were heads of fathers' houses according to their fathers' houses.

**10** Of the priests: Jedaiah, Jehoiarib, Jachin,

**11** and Azariah the son of Hilkiah, son of Meshullam, son of Zadok, son of Meraioth, son of Ahitub, the chief officer of the house of God;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2절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네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2절)

What are the four groups of people who returned from captivity? (9:2)

돌아온 사람들을 9장은 기록하는데, 기록된 이름들은 특별히 어느 성읍에 정착한 사람들인가요? (3절)

Chapter 9 recorded the people returned from exile, in what towns did they settle down? (9:3)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틀란타베다니 KUMC, 남궁 전(GA)  
아틀란타한인교회, 김세현(G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예배를 소홀히 하면 노답입니다

Neglect of worship is no answer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일단 9장에서 첫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을 지키는 등 성전에서 일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왜 성전 일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으로 매듭을 지은 것 일까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회복시켜야 할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명단을 통해서, 역대기 역사가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요? 나라가 망했다가 회복됩니다.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성전예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신을, 당신의 가정들, 비즈니스와 일터, 민족과 국가를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요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아는 신앙,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드러내십니다. 크신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The list of people returned to Israel from exile in Babylon is wrapped up in Chapter 9. And people on the list are those settled in Jerusalem. The list is a record of people serving at the temple; priests, Levites, and gatekeepers of the temple. Why was it wrapped up with the list of people serving the temple?

Upon returning from the exile, they needed to restore the core value of their life. The historians of the Chronicles declared their belief that the temple of Jerusalem should be at the center of their restoration efforts. The problem is who should take up the responsibility of the task? The country was destroyed and people returned from exile. The way of restoration of the country should start with the worship at the temple. When people meet God at the worship at the temple, that is when a new history begins.

What is the way to restore you, your families, business and workplace, people and nation? God will restore those who truly worship God. How do we worship these days? Through our faith and worship, God reveals incessantly how big and how great God is. I pray and bless that you will all meet the great Go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 사울이 죽게 된 궁극적 이유

The ultimate reason for Saul's death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10장



새91장(통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죽보 기록을 매듭지으면서 역대기 역사가는 우리를 사울 왕이 죽는 마지막 현장으로 인도한다. 다윗 왕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울 왕이 죽게 된 이유를 짚어준다.

### 역대기상 10:1-14

**1**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2**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3**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4**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5**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으니라

**6**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7**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8**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9**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10**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11** 길르앗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12**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 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칠 일간 금식하였더라

**13**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 Reading insight

As the historians of the Chronicles are completing the record of genealogy, they lead us to the place where King Saul finally died. Before beginning the story of King David in detail, the reason for King Saul's death is dealt with.

### 1 Chronicles 10:1–14

**1** Now the Philistines fought against Israel, and the men of Israel fled before the Philistines and fell slain on Mount Gilboa.

**2** And the Philistines overtook Saul and his sons, and the Philistines struck down Jonathan and Abinadab and Malchi-shua, the sons of Saul.

**3** The battle pressed hard against Saul, and the archers found him, and he was wounded by the archers.

**4** Then Saul said to his armor-bearer, "Draw your sword and thrust me through with it, lest these uncircumcised come and mistreat me." But his armor-bearer would not, for he feared greatly. Therefore Saul took his own sword and fell upon it.

**5** And when his armor-bearer saw that Saul was dead, he also fell upon his sword and died.

**6** Thus Saul died; he and his three sons and all his house died together.

**7** And when all the men of Israel who were in the valley saw that the army had fled and that Saul and his sons were dead, they abandoned their cities and fled, and the Philistines came and lived in them.

**8** The next day, when the Philistines came to strip the slain, they found Saul and his sons fallen on Mount Gilboa.

**9** And they stripped him and took his head and his armor, and sent messengers throughout the land of the Philistines to carry the good news to their idols and to the people.

**10** And they put his armor in the temple of their gods and fastened his head in the temple of Dagon.

**11** But when all Jabesh-gilead heard all that the Philistines had done to Saul,

**12** all the valiant men arose and took away the body of Saul and the bodies of his sons, and brought them to Jabesh. And they buried their bones under the oak in Jabesh and fasted seven days.

**13** So Saul died for his breach of faith. He broke faith with the LORD in that he did not keep the command of the LORD, and also consulted a medium, seeking guidance.

**14** He did not seek guidance from the LORD. Therefore the LORD put him to death and turned the kingdom over to David the son of Jesse.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사울 왕은 어떻게 죽나요? (5절)

How did King Saul die? (10:5)

사울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13, 14절)

What was the reason for the  
miserable death of Saul?  
(10:13–14)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신용철(GA)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 서정일(G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회복하라. 신앙의 안테나!

Restore! The antenna for faith journey!

죽보 기록을 매듭지으면서 역대기 역사가는 우리를 사울 왕이 죽는 마지막 현장으로 인도한다.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사울 왕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빠집니다. 기록된 것은 오직 비참하게 맞이한 죽음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13절). 배신이란 표현도 맞지만, 나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14절에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고...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곧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사무엘상 10:6-7).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겠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못 듣는 이유는, 그동안 세상 방식으로 프로그램화되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는 안테나가 무디어졌기 때문입니다.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영적 감각>이 회복되면 신앙생활이 즐거울 것입니다.

As the historians of the Chronicles were completing the record of genealogy, they take us to the last place where King Saul's life ended. All the stories about King Saul in the Book of 1 Samuel are missing here. The only event recorded is the miserable death of Saul. "Saul died because he was unfaithful to the LORD." (10:13) Here the expression "unfaithful" is valid but what strikes me more meaningful is verse 14, "Did not inquire of the LORD."

When Samuel anointed Saul as the king he said, "The Spirit of the LORD will come upon you in power, and you will prophesy with them; and you will be changed into a different person. Once these signs are fulfilled, do whatever your hand finds to do, for God is with you." (1 Samuel 10:6-7)

It is my confession of faith to live under the guidance of God. God speaks to us always. The reason why we do not hear God is that we are programmed according to worldly ways and the antenna to detect the voice of God becomes dysfunctional. There is only one way to be restored. Believe firm in Jesus. Be filled with holy spirit. When your <sensor for spirit> is restored, your faith journey will be pleasant.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0 JUL  
금 Fri

## 다윗 혼자 세운 왕국이 아닙니다

The kingdom was  
not built by the king  
alone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11장



새221장(통525장)  
주 믿는 형제들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사울 왕이 죽고 나자,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한다. 다윗은 그들과 언약을 세워 왕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였고, 용사들이 있었다.

### 역대기상 11:1-3, 9-19

**1**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2**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9**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0**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11**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삼십 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삼백 명을 죽였고

**12**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13**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14**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15** 삼십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 쳤더라

**16** 그 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17**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18**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19** 이르되 내 하나님이며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니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 Reading insight

When King Saul died, the elders of Israel came to David and asked him to become their king. David made a covenant with them to be the king. God was with David and there were the mighty warriors.

### 1 Chronicles 11:1-3, 9-19

<sup>1</sup> Then all Israel gathered together to David at Hebron and said, "Behold, we are your bone and flesh.

<sup>2</sup> In times past, even when Saul was king, it was you who led out and brought in Israel. And the LORD your God said to you, 'You shall be shepherd of my people Israel, and you shall be prince over my people Israel.'"

<sup>3</sup> So all the elders of Israel came to the king at Hebron, and David made a covenant with them at Hebron before the LORD. And they anointed David king over Israel,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by Samuel.

<sup>9</sup> And David became greater and greater, for the LORD of hosts was with him.

<sup>10</sup> Now these are the chiefs of David's mighty men, who gave him strong support in his kingdom, together with all Israel, to make him king,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concerning Israel.

<sup>11</sup> This is an account of David's mighty men: Jashobeam, a Hachmonite, was chief of the three. He wielded his spear against 300 whom he killed at one time.

<sup>12</sup> And next to him among the three mighty men was Eleazar the son of Dodo, the Ahohite.

<sup>13</sup> He was with David at Pas-dammim when the Philistines were gathered there for battle. There was a plot of ground full of barley, and the men fled from the Philistines.

<sup>14</sup> But he took his stand in the midst of the plot and defended it and killed the Philistines. And the LORD saved them by a great victory.

<sup>15</sup> Three of the thirty chief men went down to the rock to David at the cave of Adullam, when the army of Philistines was encamped in the Valley of Rephaim.

<sup>16</sup> David was then in the stronghold, and the garrison of the Philistines was then at Bethlehem.

<sup>17</sup> And David said longingly, "Oh that someone would give me water to drink from the well of Bethlehem that is by the gate!"

<sup>18</sup> Then the three mighty men broke through the camp of the Philistines and drew water out of the well of Bethlehem that was by the gate and took it and brought it to David. But David would not drink it. He poured it out to the LORD

<sup>19</sup> and said, "Far be it from me before my God that I should do this. Shall I drink the lifeblood of these men? For at the risk of their lives they brought it." Therefore he would not drink it. These things did the three mighty men.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다윗이 강대해질 수 있었던 비밀은 어디에 있었나요? (9절)

What was the secret of David's success to become so powerful? (11:9)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운 용사들 중 '세 용사'가 있다. 세 용사의 대장은 누구인가요? (11절)

There were 'three mighty men' among the loyal warriors who helped David, who was the leader of the three mighty men? (11:11)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집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해밀턴말한인교회, 정찬웅(GA)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덕건(TX)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세 용사, 믿음의 삼겹 줄!

Three mighty warriors, three strands of faith!

역대기서는 사무엘서와 달리,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이 혼자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다윗과 함께 했던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을 길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세 용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 용사가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베들레헬 성문 곁 우물물 떠오는 임무,” 세 사람은 자원했고, 그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나!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다”(19절). 용사는 말로 <용사의 결의>를 맺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더니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국을 만든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세 명의 용사를 만들 다른 두 사람을 만났느냐?” 하나님은 교회 사역 현장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도서 4:12).

Unlike the Book of Samuel, the Book of Chronicles is different and special. David did not become the king alone but he had the long list of loyal devoted warriors. Especially there were three mighty men. How were those three mighty men brought about? During the war against Philistine those three volunteered to join “the duty to bring water from the well next to the gate of Bethlehem” and they carried out the duty successfully. But David would not drink the water from the well. “God forbid that I should do this!”

“Should I drink the blood of these men who went at the risk of their lives?” (11:19) It wasn't that his warriors were united with the words of a warrior's resolution. As they tried to carry out a mission together, they happened to meet each other. This was the secret behind the formation of the kingdom of David. God gives each of us a mind. “Have you met the two warriors to make three?” We must trust that God will provide the two at the site of our ministry. “Though one may be overpowered, two can defend themselves. A cord of three strands is not quickly broken.” (Ecclesiastes 4:12)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많다 그 비밀을 열다

There were many  
who followed  
David; The secret  
is revealed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12-13장



새134장(통8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다윗을 따른 사람들은 곳곳에서 나옵니다. 유다 지파뿐만이 아닙니다. 베냐민, 갓, 므낫세 등 모든 지파를 다 망라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했던 비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 역대기상 12:1-18

- 1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 2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 3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 4 기브온 사람 곧 삼십 명 중에 용사요 삼십 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한안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 5 엘루새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룸 사람 스바다와
- 6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잇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브암이며
- 7 그들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 8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 9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 10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 11 여섯째는 앓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 12 여덟째는 요한안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 13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내라
- 14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 15 정월에 요단 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 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 16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 17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 18 그 때에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 Reading insight

The followers of David came from all over. Not only the tribe of Judah but also the tribes of Benjamin, Gad, and Manasseh and many more joined David. I am curious about what is the secret for such unity behind David?

### 1 Chronicles 12:1-18

**1** Now these are the men who came to David at Ziklag, while he could not move about freely because of Saul the son of Kish. And they were among the mighty men who helped him in war.

**2** They were bowmen and could shoot arrows and sling stones with either the right or the left hand; they were Benjaminites, Saul's kinsmen.

**3** The chief was Ahiezer, then Joash, both sons of Shemaah of Gibeah; also Jeziel and Pelet, the sons of Azmaveth; Beracah, Jehu of Anathoth,

**4** Ishmaiah of Gibeon, a mighty man among the thirty and a leader over the thirty; Jeremiah, Jahaziel, Johanan, Jozabad of Gederah,

**5** Eluzai, Jerimoth, Bealiah, Shemariah, Shephatiah the Haruphite;

**6** Elkanah, Isshiah, Azarel, Joezer, and Jashobeam, the Korahites;

**7** And Joelah and Zebadiah, the sons of Jeroham of Gedor.

**8** From the Gadites there went over to David at the stronghold in the wilderness mighty and experienced warriors, expert with shield and spear, whose faces were like the faces of lions and who were swift as gazelles upon the mountains:

**9** Ezer the chief, Obadiah second, Eliab third,

**10** Mishmannah fourth, Jeremiah fifth,

**11** Attai sixth, Eliel seventh,

**12** Johanan eighth, Elzabad ninth,

**13** Jeremiah tenth, Machbannai eleventh.

**14** These Gadites were officers of the army; the least was a match for a hundred men and the greatest for a thousand.

**15** These are the men who crossed the Jordan in the first month, when it was overflowing all its banks, and put to flight all those in the valleys, to the east and to the west.

**16** And some of the men of Benjamin and Judah came to the stronghold to David.

**17** David went out to meet them and said to them, "If you have come to me in friendship to help me, my heart will be joined to you; but if to betray me to my adversaries, although there is no wrong in my hands, then may the God of our fathers see and rebuke you."

**18** Then the Spirit clothed Amasai, chief of the thirty, and he said, "We are yours, O David, and with you, O son of Jesse! Peace, peace to you, and peace to your helpers! For your God helps you." Then David received them and made them officers of his troops.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대세가 다윗에게 기울기 전에 용사들이 모인다. 아돌람 굴로 피신했을 때가 첫번째, 두 번째는 언제 인가요?

(1절, 사무엘상 27:6 참조)

The warriors converged to David even before the pendulum tilted in favor of David. The first time was when David escaped to hide in the cave of Adullam, when was the second time? (1 Chronicles 12:1, 1 Samuel 27:6)

삼십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는 누구였나요? (18절)

Who was the chief of the Thirty? (12:18)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달라스북부중앙 KUMC, 조낙훈(TX)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 박광배(TX)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흠 없으신 왕,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the King without sin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 휘하로 들어갔을 때, 아기스 왕은 한 성읍 시글락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때에도, 용사들이 곳곳에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나중에 삼십인 특별부대 대장이 된 아마새 [아비새]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장군님 편입니다”(18절). 각오가 분명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그 비밀이 있었을까요?

아마새 일행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누구와도 화친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시기를 바라오”(17절). 다윗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첫째, 저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여러분들이 나를 대적해도 나는 내가 여러분과 직접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 일을 맡깁니다.

이런 다윗이라면 저라도 그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임무를 감당하시는 분.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When David went over to king Achish of Gath in Philistine, king Achish gave David one town called Ziklag. Even then many warriors came over to David from all over the places. Amasai who later became the chief of the Thirty was one of the many that came to David, and he said, “We are yours, O David!” (12:18) Their resolve was firm. David had special charm and power to attract people. What was the secret?

When Amasai and his group came to David, David said, “If you have come to me in peace, to help me, I am ready to have you unite with me. But if you have come to betray me to my enemies when my hands are free from violence, may the God of our fathers see it and judge you.” (12:17) David made two things clear. First, he did not do any harm to others. Second, even though others may betray him he will not put up direct fight against them. He will leave it to God. If I were Amasai, I would also join David as his subordinate. There is a person like David. He is Jesus. He is free of sin, he left everything to God the Father and completed his mission. If we walk the path of faith that follows Jesus today, God will keep us in peac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박상춘 목사 (앤아버대학총무교회, MI)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교회에 주일 예배도 드리며 나름 건강한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해오고 있던 한 자매님의 간절한 질문을 한번 묵상해봅니다. 이 자매님의 고민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속자로 받아들이며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 또는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 삶에서 느끼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답답함이 그 자매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야기하며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또한 그분의 나를 향한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지 늘 궁금하고 늘 답답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는 각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그분과 마치 부부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며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인 문제일까요?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하고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날 수가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왜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묵상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실제의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만일 그렇지 않으시다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매일 삶 속에서 그분과 만남을 이루는 - 예배의 삶인가요? 솔로몬은 성전 건물 짓느라 성전의 목적인 예배를 상실합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성전을 짓는다는 일로 변하여 족고 결국에는 예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큼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고전 3:16). 아직 나의 성전됨이 온전치 못하여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예수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의 의를 포기하므로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그리고 그 말씀이 뜨겁게 하심(눅 24:32)을 느끼는 시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잠잠히 하나님을 느껴 보세요,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심을 볼 것입니다.

13 JUL  
월 Mon

## 아하! 깨우치는 다윗

A-ha! David's  
Realization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13-14장



새325장(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베레스 옷사 사건이 있고 나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낸다. 백향목과 목수를 보내어 궁궐을 지어준다. 그러자 다윗은 깨닫는 바가 있었다.

### 역대기상 14:1-2, 8-17

**1**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2**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앎이었더라

**8**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9**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10**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11** 이에 우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흠으셨다 하므로 그 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12**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 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13**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14**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뿔나무 수풀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15** 뿔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16**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7**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 Reading insight

After the incident at Perez Uzzah, Hiram king of Tyre sends messengers to David. Along with messengers, he sends cedar logs and carpenters to build a palace for David. Through this, David comes to an important realization.

## 1 Chronicles 14:1-2, 8-17

**1** And Hiram king of Tyre sent messengers to David, and cedar trees, also masons and carpenters to build a house for him.

**2** And David knew that the LORD had established him as king over Israel, and that his kingdom was highly exalted for the sake of his people Israel.

**8** When the Philistines heard that David had been anointed king over all Israel, all the Philistines went up to search for David. But David heard of it and went out against them.

**9** Now the Philistines had come and made a raid in the Valley of Rephaim.

**10** And David inquired of God, "Shall I go up against the Philistines? Will you give them into my hand?" And the LORD said to him, "Go up, and I will give them into your hand."

**11** And he went up to Baal-perazim, and David struck them down there. And David said, "God has broken through my enemies by my hand, like a bursting flood." Therefore the name of that place is called Baal-perazim.

**12** And they left their gods there, and David gave command, and they were burned.

**13** And the Philistines yet again made a raid in the valley.

**14** And when David again inquired of God, God said to him, "You shall not go up after them; go around and come against them opposite the balsam trees.

**15** And when you hear the sound of marching in the tops of the balsam trees, then go out to battle, for God has gone out before you to strike down the army of the Philistines."

**16** And David did as God commanded him, and they struck down the Philistine army from Gibeon to Gezer.

**17** And the fame of David went out into all lands, and the LORD brought the fear of him upon all nations.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두로 왕 히람이 궁궐을 지어줍니다.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나요? (2절)

After Hiram king of Tyre builds a palace for David, what did David realize? (v. 2)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누구의 도움으로 이기나요? (10절, 14-16절)  
When the Philistines hear that David became anointed king, they start a war against David. With whose help does David strike down the Philistine army? (vs. 10, 14-16)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집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이성철(TX)  
동화연합감리교회, 박경원(TX)  
목회자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If the Lord is with us

베레스 옷사의 사건이 있고 나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궁궐도 지어줍니다. 반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당대의 최강자 블레셋을 어렵지 않게 물리칩니다. 다윗의 명성이 알려지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두렵게 하십니다. 아무도 다윗을 설볼리 무시하지 못합니다.

요즘, 교회의 권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향해 권위가 있나요? 권위는 어디에서 올까요?

전쟁마다 다윗은 매번 하나님께 아뢰니다(10절, 14절).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정보가 넘치는 시대, 우리의 명철을 쫓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진정 살아 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기도한 대로 되면, 사람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동네에 교회가 있음을 소중히 여길 때가 올 것입니다.

After the incident at Perez Uzzah, Hiram king of Tyre sends messengers to David. He even builds a palace for David. On the other hand, Philistines attack David. But David easily defeats the mighty Philistines. David's fame spreads throughout every land, and the Lord makes all the nations fear him. No one can ignore David anymore.

How is God's church in the eyes of people these days? Do you think people respect Christians in our world today? Where do you think this respect comes from?

Before every battle, David inquired of God again and again (v. 10, 14). David asks God, “Shall I go and attack the Philistines?” As we live in an information-driven world, it is easy for us to rely upon our wisdom and information. But listening to God's voice is not something that is achieved through technology. I believe that God always answers without fail to those who truly believe in the living God. Do people ever say this about your church: “That church is a praying church.” When people see that God answers our prayers, people will change. Then, they will come to have genuine respect for the church in their community.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4 JUL  
화 Tue

## 언약궤를 옮기다

Carrying the Ark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15장



새341장(통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언약궤를 급하게 옮기려다, 옷사가 죽는 사건 이후, 다윗은 무엇을 하였을까? 준비를 한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알고 그대로 시행한다.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역대기상 15:1-16

- 1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 2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댈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시라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 3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와 그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 4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 5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백이십 명이요
- 6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이백이십 명이요
- 7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백삼십 명이요
- 8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이백 명이요
- 9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팔십 명이요
- 10 웃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백십이 명이라
- 11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 12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메어 올리라
- 13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 14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 15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니라
- 16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 Reading insight

What did David do after the incident where Uzzah died as he tried to bring the Ark with haste? He learned. After learning how the Ark should be transported, David does it as prescribed. A believer should live according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one has.

## 1 Chronicles 15:1–16

**1** David built houses for himself in the city of David. And he prepared a place for the ark of God and pitched a tent for it.

**2** Then David said that no one but the Levites may carry the ark of God, for the LORD had chosen them to carry the ark of the LORD and to minister to him forever.

**3** And David assembled all Israel at Jerusalem to bring up the ark of the LORD to its place, which he had prepared for it.

**4** And David gathered together the sons of Aaron and the Levites:

**5** of the sons of Kohath, Uriel the chief, with 120 of his brothers;

**6** of the sons of Merari, Asaiah the chief, with 220 of his brothers;

**7** of the sons of Gershon, Joel the chief, with 130 of his brothers;

**8** of the sons of Elizaphan, Shemaiah the chief, with 200 of his brothers;

**9** of the sons of Hebron, Eliel the chief, with 80 of his brothers;

**10** of the sons of Uzziel, Amminadab the chief, with 112 of his brothers.

**11** Then David summoned the priests Zadok and Abiathar, and the Levites Uriel, Asaiah, Joel, Shemaiah, Eliel, and Amminadab,

**12** and said to them, “You are the heads of the fathers’ houses of the Levites. Consecrate yourselves, you and your brothers, so that you may bring up the ark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to the place that I have prepared for it.

**13** Because you did not carry it the first time, the LORD our God broke out against us, because we did not seek him according to the rule.”

**14** So the priests and the Levites consecrated themselves to bring up the ark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15** And the Levites carried the ark of God on their shoulders with the poles, as Moses had commanded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16** David also commanded the chiefs of the Levites to appoint their brothers as the singers who should play loudly on musical instruments, on harps and lyres and cymbals, to raise sounds of joy.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언약궤는 누가 메어야 하나요?  
(2절)

Who should carry the Ark?  
(v. 2)

지난 번 옷사가 죽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13절)

Why did Uzzah die when  
they tried to bring the Ark the  
first time?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집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웨슬리연합감리교회, 이진희(TX)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권성철(TX)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실패를 통해 깨우치다

Learning from One's Mistake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 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मे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13절).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는 깨우침의 통로가 되지요.

하나님은 왜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하셨을까요? 수레에 싣고 편하게 옮기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면 신앙의 근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어깨에 무게감을 느끼며 실행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영광’이란 히브리어 ‘카보드’에는 무게감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 주시는 반석 같은 무게감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David learns what is important as he tries to build the kingdom of Israel. He says in v. 13, “It was because you, the Levites, did not bring it up the first time that the Lord our God broke out in anger against us. We did not inquire of him about how to do it in the prescribed way.” Everyone makes mistakes. But mistakes can become opportunities for new learning.

Why did God required that the Ark should be carried on the shoulders of people using a pole? Wouldn't using a cart to transport the Ark be easier rather than carrying it on the shoulder?

By carrying the Ark, which is God's Word, on one's shoulder, one's faith is strengthened. When one does not neglect God's Word and command but tries to obey them even when doing so may feel like a heavy responsibility, God will glorify you. The Hebrew word “kabod”, which is translated into English as “glory”, has the root meaning of “weight” or “heaviness.” As such, we will experience God's secure and “heavy” presence in our life, holding us together like a rock so that we will not be shaken.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5 JUL  
수 Wed

# 다윗이 기쁨으로 예배하다

David Worships  
with Gladness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16장



새368장(통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언약궤를 준비된 곳에 옮겨 놓고 나서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니다. 비로소 시작된 것이 있었다. 예배였다. 예배하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가?

## 역대기상 16:7-27

7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10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1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12-13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14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15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 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16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7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8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19 그 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20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21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22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23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4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25 여호와와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26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27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 Reading insight

David is not done yet after bringing the Ark to the prepared place. It is only the beginning. Worship follows.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hear the word “worship”?

### 1 Chronicles 16:7-27

**7** Then on that day David first appointed that thanksgiving be sung to the LORD by Asaph and his brothers.

**8** Oh give thanks to the LORD; call upon his name; make known his deeds among the peoples!

**9** Sing to him; sing praises to him; tell of all his wondrous works!

**10** Glory in his holy name; let the hearts of those who seek the LORD rejoice!

**11** Seek the LORD and his strength; seek his presence continually!

**12** Remember the wondrous works that he has done, his miracles and the judgments he uttered,

**13** O offspring of Israel his servant, sons of Jacob, his chosen ones!

**14** He is the LORD our God; his judgments are in all the earth.

**15** Remember his covenant forever, the word that he commanded, for a thousand generations,

**16** the covenant that he made with Abraham, his sworn promise to Isaac,

**17** which he confirmed as a statute to Jacob, as an everlasting covenant to Israel,

**18** saying, “To you I will give the land of Canaan, as your portion for an inheritance.”

**19** When you were few in number, and of little account, and sojourners in it,

**20** wandering from nation to nation, from one kingdom to another people,

**21** he allowed no one to oppress them; he rebuked kings on their account,

**22** saying, “Touch not my anointed ones, do my prophets no harm!”

**23** Sing to the LORD, all the earth! Tell of his salvation from day to day.

**24** Declare his glory among the nations, his marvelous works among all the peoples!

**25** For great is the LORD, and greatly to be praised, and he is to be held in awe above all gods.

**26** For all the gods of the peoples are idols, but the LORD made the heavens.

**27** Splendor and majesty are before him; strength and joy are in his place.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다윗,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고 찬양을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나요? (16:7)

David offers praise to God after bringing the Ark. How did he offer praise to God? (vs. 4, 7)

주님을 예배하는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16:27)

What are the things we experience when we worship God? (v. 27)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집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갈릴리연합감리교회, 엄모성(ILL)  
글렌브룩한인연합감리교회, 고은영(ILL)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예배는 즐거운 것!

Worship Lifts Our Spirit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놓고 나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만 드리지 않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합니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27절)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를 돌아보면, 목회자로서 감사의 예배도 있었지만, 때로는 부담감에 묶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9년도 10월 들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질문이 있습니다. “류 목사, 너 목회가 부담스럽느냐? 힘들느냐?” 말씀드렸습니다. “네 부담스럽고, 힘들다”라고. 그런데 그 질문을 한 달을 붙들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다. 부담스럽지만, 이제 즐거운 순종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2020년 교회사역 표어를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예배자, 삶의 기쁨.” 마음을 바꾸고 나니, 모든 예배가 감사이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임하시니 그럽습니다.

After bringing the Ark of the Lord, he makes offerings to God. Not only does David make offerings to God, he also offers God the praise of thanks. “Splendor and majesty are before him; strength and joy are in his dwelling place.”

Here’s a question to be considered. How is it when we worship? Looking back at myself as a clergy, I can say that I do worship with thanksgiving but, sometimes, I also worship with a sense of burden. In October of 2019, I heard a voice of God as I prayed asking me a question. “Is ministry burdensome for you? Is it difficult?” So I answered. “Yes, it is.” After that, God continue to make me wrestle with that question for a month. Finally, I came to make a confession to God, “Father God, although serving can be difficult and burdensome, I am willing to serve you with gladness from now on. Worshipping you and experiencing your presence in my life is my joy and I am thankful for it.”

Through this experience, I came up with a ministry slogan for my church 2020 that reads, “Worship, Life’s Joy.” After this change in my heart, every worship service is now filled much gratitude and joy. This is what happens when God is truly present with u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6 JUL  
목 Thu

#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다

God Blesses David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17장



새370장(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백향목 왕궁에 살게 된 다윗은, 이제 이를 것을 이뤘다고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 역대기상 17:1-15

**1**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와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2**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3**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5**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6**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7**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8**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9**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 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10**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11**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2**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4**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였다 하라

**15**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 Reading insight

After settling down in his palace made of cedar, David doesn't consider himself to have completed everything. He considers the Ark of the Lord. Seeing the thoughts of David's heart, God blesses David.

### 1 Chronicles 17:1-15

**1** Now when David lived in his house, David said to Nathan the prophet, "Behold, I dwell in a house of cedar, but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is under a tent."

**2** And Nathan said to David, "Do all that is in your heart, for God is with you."

**3** But that same night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Nathan,

**4** "Go and tell my servant David, 'Thus says the LORD: It is not you who will build me a house to dwell in.

**5** For I have not lived in a house since the day I brought up Israel to this day, but I have gone from tent to tent and from dwelling to dwelling.

**6** In all places where I have moved with all Israel, did I speak a word with any of the judges of Israel, whom I commanded to shepherd my people, saying, "Why have you not built me a house of cedar?"

**7** Now, therefore, thus shall you say to my servant David, 'Thus says the LORD of hosts, I took you from the pasture, from following the sheep, to be prince over my people Israel,

**8** and I have been with you wherever you have gone and have cut off all your enemies from before you. And I will make for you a name, like the name of the great ones of the earth.

**9** And I will appoint a place for my people Israel and will plant them, that they may dwell in their own place and be disturbed no more. And violent men shall waste them no more, as formerly,

**10** from the time that I appointed judges over my people Israel. And I will subdue all your enemies. Moreover, I declare to you that the LORD will build you a house.

**11** When your days are fulfilled to walk with your fathers, I will raise up your offspring after you, one of your own sons, and I will establish his kingdom.

**12** He shall build a house for me, and I will establish his throne forever.

**13** I will be to him a father, and he shall be to me a son. I will not take my steadfast love from him, as I took it from him who was before you,

**14** but I will confirm him in my house and in my kingdom forever, and his throne shall be established forever."

**15** In accordance with all these words, and in accordance with all this vision, Nathan spoke to David.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왕궁에 살게 된 다윗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불편함은 무엇이었나요? (1절)

Why was David not at ease even after he finally got settled in the palace? (v. 1)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나요? (10절)

2. How did God promise to bless David through Prophet Nathan? (v. 10)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남부시카고 KUMC, 김윤기A(IL)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 박관우(IL)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마음 썸썸이를 선하게

Is Your Heart in the Right Place?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첫째는 내가 살 집을 다윗이 지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 대신 그 마음을 알겠다. 이제 지금까지 지켜주었듯이, 앞으로 다윗의 집안을 왕의 가문으로 세우고 지키시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런 축복을 내리시게 되었을까 묵상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이제 왕궁에 살게 된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1절). 다윗은 마음에 두고 있던 불편함, 나는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렇지 못하다는 마음을 표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율법의 내용, 또는 교리를 이해하고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이 보여주는 <마음 썸썸이>를 보고, 응답하신 것이지요. 단순히 주고받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뭔가를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God spoke through Prophet Nathan. First, David is not to build a house for God to dwell in. Second, God has seen the thoughts of David's heart. As God has been with him to this day, God will build his household into household of kings. I wonder why God decides to lavish such blessings on David. The reason can be found in verse 1. After settling down in his palace, David says to Nathan, "Here I am, living in a house of cedar, whil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is under a tent." By this, David expresses his dis-ease in living in a nice palace while the Ark is not.

Faith is much more than simply understanding and following the laws and doctrinal teachings in life. Most importantly faith is about having a personal relationship or fellowship with God. And so God saw the heart of David that considers and cares for God. Faith is a relationship.

I pray that as you live through this day, you will have the desire to serve God in some concrete and tangible ways. Not out of duty but out of love and willing heart.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17 JUL  
금 Fri

# 다윗을 전쟁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God delivers victory  
to David  
in every war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18-19장



새384장(통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대로 왕의 가문으로 세우시겠다는 축복에 다윗은 감사로 응답한다. 그러자, 다윗이 출전하는 전투마다 승리하게 된다.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 역대기상 18:1-14

1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2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3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테 강 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 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4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칠천 명과 보병 이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 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밭의 힘줄을 끊었더니

5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이만 이천 명을 죽이고

6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7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8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랏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9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10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11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12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인지라

13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4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

## Reading insight

When God promises to bless David's dynasty, David praises God. No enemy is able to defeat David. May we also live a victorious life in God!

### 1 Chronicles 18:1-14

**1** After this David defeated the Philistines and subdued them, and he took Gath and its villages out of the hand of the Philistines.

**2** And he defeated Moab, and the Moabites became servants to David and brought tribute.

**3** David also defeated Hadadezer king of Zobah-Hamath, as he went to set up his monument at the river Euphrates.

**4** And David took from him 1,000 chariots, 7,000 horsemen, and 20,000 foot soldiers. And David hamstringed all the chariot horses, but left enough for 100 chariots.

**5** And when the Syrians of Damascus came to help Hadadezer king of Zobah, David struck down 22,000 men of the Syrians.

**6** Then David put garrisons in Syria of Damascus, and the Syrians became servants to David and brought tribute. And the LORD gave victory to David wherever he went.

**7** And David took the shields of gold that were carried by the servants of Hadadezer and brought them to Jerusalem.

**8** And from Tibhath and from Cun, cities of Hadadezer, David took a large amount of bronze. With it Solomon made the bronze sea and the pillars and the vessels of bronze.

**9** When Tou king of Hamath heard that David had defeated the whole army of Hadadezer, king of Zobah,

**10** he sent his son Hadoram to King David, to ask about his health and to bless him because he had fought against Hadadezer and defeated him; for Hadadezer had often been at war with Tou. And he sent all sorts of articles of gold, of silver, and of bronze.

**11** These also King David dedicated to the LORD, together with the silver and gold that he had carried off from all the nations, from Edom, Moab, the Ammonites, the Philistines, and Amalek.

**12** And Abishai, the son of Zeruiah, killed 18,000 Edomites in the Valley of Salt.

**13** Then he put garrisons in Edom, and all the Edomites became David's servants. And the LORD gave victory to David wherever he went.

**14** So David reigned over all Israel, and he administered justice and equity to all his people.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을 언질 받은 다윗, 첫번째로 전쟁을 벌입니다. 어느 족속을 제압하려고 했나요? (1절)

After God's affirmation on His protection over David's dynasty, David enters into the first war. What army does David want to defeat? (18:1)

축복을 받자, 다윗은 참다운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다스렸나요? (14절)

King David acknowledges God's blessing and he becomes a humble and a good king. Which virtue of David do we see in this chapter? (18:14)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비전교회, 우민혁(IL)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김태준(IL)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감사찬양은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

A vessel of thanksgiving and praise will hold God's blessing

다윗의 마음 씀씀이를 보신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응답하지요. 그리고 민족의 숙적인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가드를 정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압과 유프라테스 강 쪽의 소바 왕까지 정벌합니다. 그러자, 판세가 바뀝니다. 주변 나라들이 사절단과 더불어 조공을 보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같으면 교만해질 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14절).

축복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신실한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이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의 넉넉함>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디모데전서 4:4). 감사는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God saw David's heart desire and He blessed David. David responded with thanksgiving and humility. This led him to defeat the Philistines and took the town of Gath away from the Philistines. The neighboring countries wanted to appease David and they sent tribute.

If you are in a similar situation, how do you think you would become? Most likely to become arrogant. But David remained the same and guaranteed justice for all his people. (v. 14)

There is a serious danger for the blessed to fumble. But David didn't become arrogant. On the contrary, he faithfully executed his kingly duty. Where did he gain that wisdom? He was the man to take the abundance of blessings in praising and giving thanksgiving to God. 1 Timothy 4:4 says. "For every creation of God is good and no food is to be rejected if it is receive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 사탄의 음모, 벌받는 다윗, 그런데...

The scheme of  
Satan and God's  
punishment for  
David. And....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20-21장



새251장(통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잘 되고 있는 다윗을 사탄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는다.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 인구조사를 하게 한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재앙을 내리신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하다.

### 역대기상 21:16-30

**16**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와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굶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17**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18** 여호와와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19** 이에 갓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20** 그 때에 오르난이 밭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21**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22**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23**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24**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25**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육백 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26**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28** 이 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29**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와 성막과 번제단이 그 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30** 다윗이 여호와와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 Reading insight

Do you know that Satan never leaves God's faithful ones alone? This adversary seduced David to count his army. God becomes angry and brings plagues. How will David respond?

### 1 Chronicles 21:16-30

**16** And David lifted his eyes and saw the angel of the LORD standing between earth and heaven, and in his hand a drawn sword stretched out over Jerusalem. Then David and the elders, clothed in sackcloth, fell upon their faces.

**17** And David said to God, "Was it not I who gave command to number the people? It is I who have sinned and done great evil. But these sheep, what have they done? Please let your hand, O LORD my God, be against me and against my father's house. But do not let the plague be on your people."

**18** Now the angel of the LORD had commanded Gad to say to David that David should go up and raise an altar to the LORD on the threshing floor of Ornan the Jebusite.

**19** So David went up at Gad's word, which he had spoken in the name of the LORD.

**20** Now Ornan was threshing wheat. He turned and saw the angel, and his four sons who were with him hid themselves.

**21** As David came to Ornan, Ornan looked and saw David and went out from the threshing floor and paid homage to David with his face to the ground.

**22** And David said to Ornan, "Give me the site of the threshing floor that I may build on it an altar to the LORD--give it to me at its full price--that the plague may be averted from the people."

**23** Then Ornan said to David, "Take it, and let my lord the king do what seems good to him. See, I give the oxen for burnt offerings and the threshing sledges for the wood and the wheat for a grain offering; I give it all."

**24** But King David said to Ornan, "No, but I will buy them for the full price. I will not take for the LORD what is yours, nor offer burnt offerings that cost me nothing."

**25** So David paid Ornan shekels of gold by weight for the site.

**26** And David built there an altar to the LORD and presented burnt offerings and peace offerings and called on the LORD, and the LORD answered him with fire from heaven upon the altar of burnt offering.

**27** Then the LORD commanded the angel, and he put his sword back into its sheath.

**28** At that time, when David saw that the LORD had answered him at the threshing floor of Ornan the Jebusite, he sacrificed there.

**29** For the tabernacle of the LORD, which Moses had made in the wilderness, and the altar of burnt offering were at that time in the high place at Gibeon,

**30** but David could not go before it to inquire of God, for he was afraid of the sword of the angel of the LORD.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제단을 쌓으라고 한 타작 마당은 누구의 것이었나요? (21:18)

Where is the threshing floor, the place where David was instructed to build an altar for God? And whom does that belong to? (21:18)

왕이면 다른 사람, 특히 여부스 족속인 사람의 타작마당을 빼앗을 수 있었을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주고 그 밭을 샀니다. 얼마에 샀나요? (21:25)

David, being a king, could have taken the threshing floor from Araunah the Jebusite. However, David refused to do that and bought the land from him. How much did he pay for it? (21:25)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샘물연합감리교회, 박미숙(IL)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 조선희(I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해피엔딩은 언제나 열려있다

Happy ending is always possible

사탄은 잘 되고 있는 다윗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인구 조사를 부추겼고, 다윗은 그 부추김에 넘어갑니다. 자신이 부릴 수 있는 병력을 숫자로 손에 쥐려 했던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리셨고,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재앙의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다윗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사탄의 계략은 성공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화위복!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렸던 것일까요?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 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17절).

죄를 나에게 돌려 달라는 다윗의 신실한 요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대신 발돋움 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고백은 항상 사탄의 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해피엔딩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Satan couldn't let David slide with his success. Satan tempted David to order an edict to register the number of his army. This angered God and led God to send down a plague.

It was Jerusalem's turn to suffer... And this is the day the angel of the Lord takes out the sword from its sheath to plague the city. At that very moment, David threw himself down before God.

It seemed Satan's strategy worked. But, not so fast! What changed God to relent?

People are God's flock. David said to God, "Was I not the one who decided to number the army? I am the one who sinned and committed this awful deed. As for these sheep—what have they done? O Lord my God, attack me and my family, but remove the plague from your people!" (1 Chronicles 21:17)

David's sincere plea moved God's heart. David pleaded: "attack me and my family not your people." We do sin and make mistakes. But we have to grow in humbleness to confess our sins like David. The sincere confession removed the power of Satan's schemes. Our stories can have happy endings and it's up to us to make that possibl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제목 Title

.....

성경본문 Scripture

.....

주요내용 Outline

.....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동역자를 얻는 축복

박순탁 목사(섬기는교회, NJ)

역대상 11장을 보면 사울의 나라에서 다윗의 나라로 바꾸여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지파의 자손이었고, 수많은 지지자들을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충성스럽고 출중한 장수들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동역자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동역자, 큐티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 큰 축복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않은 여부스 사람을 칠 때에도 누가 가겠는가 했을 때, 요압이라는 사람이 가서 여부스를 치고 휘하에 최고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 었더라.(대상 11:10)”

분명히 다윗이 어떻게 잘 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돕도록, 다윗을 힘껏 돕도록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도우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크게 깨닫게 되는데, 한 번은 다윗이 부하들의 충성심을 알아보려고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성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을 흘리자, 다윗의 그 목마름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적진을 향해 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세 장



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가서 우물물을 떠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크게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내가 목마르다고 말 한마디에 부하들을 목숨을 걸게 하다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며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대상 11:18-19)” 대개 이 정도 되면 자신의 권력을 누리면서 오히려 더 이런 일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 권력에 맞게 취하면, 참된 권세의 하나님께 혼이 날 수 있지요.

다윗은 잠깐 그렇게 한 것에 부끄러워하면서 그 물을, 자신을 위해 충성을 다한 장수들의 피와 같은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게 정말 좋은 동역자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 영향력이 그 정도로 괜찮아 서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나를 돕도록 도우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아직 그런 동역자가 없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동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게 그런 동역자를 보내주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첫째, 내게는 어떤 동역자들이 있는가? 둘째, 나는 누군가의 좋은 동역자인가? 셋째,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는가?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내게 붙여주실 동역자들을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붙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 또한 누군가의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20 JUL  
월 Mon

## 레위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다

Davis counts  
the numbers  
of Levites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22-23장



새494장(통188장)  
만세 반석 열리니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레위 사람들의 수를 조사한다. 다윗이 구상하고 있는 성전 건축은 건물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참된 성전 건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역대기상 23:1-14

- 1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매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 2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 3 레위 사람은 삼십 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삼만 팔천 명인데
- 4 그 중의 이만 사천 명은 여호와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육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 5 사천 명은 문지기요 사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 6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 7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 8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 9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 10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 11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 12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 네 사람이라
- 13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 14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 Reading insight

As David is approaching the end of life, he assembles the priests and Levites. The construction of God's temple isn't just about a building. What makes a true and good temple of God?

### 1 Chronicles 23:1-14

**1** When David was old and full of days, he made Solomon his son king over Israel.

**2** David assembled all the leaders of Israel and the priests and the Levites.

**3** The Levites, thirty years old and upward, were numbered, and the total was 38,000 men.

**4** "Twenty-four thousand of these," David said, "shall have charge of the work in the house of the LORD, 6,000 shall be officers and judges

**5** 4,000 gatekeepers, and 4,000 shall offer praises to the LORD with the instruments that I have made for praise."

**6** And David organized them in divisions corresponding to the sons of Levi: Gershon, Kohath, and Merari.

**7** The sons of Gershon were Ladan and Shimei.

**8** The sons of Ladan: Jehiel the chief, and Zetham, and Joel, three.

**9** The sons of Shimei: Shelomoth, Haziël, and Haran, three. These were the heads of the fathers' houses of Ladan.

**10** And the sons of Shimei: Jahath, Zina, and Jeush and Beriah. These four were the sons of Shimei.

**11** Jahath was the chief, and Zizah the second; but Jeush and Beriah did not have many sons, therefore they became counted as a single father's house.

**12** The sons of Kohath: Amram, Izhar, Hebron, and Uzziel, four.

**13** The sons of Amram: Aaron and Moses. Aaron was set apart to dedicate the most holy things, that he and his sons forever should make offerings before the LORD and minister to him and pronounce blessings in his name forever.

**14** But the sons of Moses the man of God were named among the tribe of Levi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다윗이 조사한 레위 지파의 남자의 숫자가 파악된다. 전체 몇 명 인가요? (23:3)

When the Levites assembled, the number of all the males were counted. How many were there? (23:3)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세 아들 중 누구의 손자인가요? (23:12-13)

Aaron and Moses are the grandsons of Levi's three sons. Who is their grandfather? (23:12-13)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IL)  
올랜도 KUMC, 이동근(IL)  
목회자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예배 관전자보다 예배자가 훨씬 좋다

It is better to be the participants of the worship than observers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다윗은 레위 지파에 속한 스무 살이 넘는 남자의 수를 조사하게 합니다. 모두 삼만 팔천 명입니다. 이만 사천 명은 성전 일을 맡은 사람, 육천 명은 서기관과 재판관, 그리고 남은 8천 명 중, 4천 명은 문지기, 나머지 4천은 성전 찬양대의 임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레위로부터 이어지는 족보에 따라 리더가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임무를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32절).

다윗이 구상하고 있는 성전 건축은 어떤 것인 것 같은가요?

다윗이 구상하고 있는 성전 건축은 건물을 짓는 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드러지는 성전 예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삼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합니다. 성전의 중심은 예배이며, 예배의 중심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곧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인가요? 예배 관전자인가요?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나요?

As David was planning for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the men who are at the age of twenty and over were recorded. And it was a total of 38,000. 24,000 were to work in the temple. 6,000 were to serve as secretaries and judges. The rest of 8,000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4,000 to be the gatekeepers and 4,000 to be the singers. They were given specific tasks; “They were in charge of the meeting tent and the Holy Place, and helped their relatives, the descendants of Aaron, in the service of the Lord’s temple.” (1 Chronicle 23:32)

What was the blueprint of David’s temple? It seems it wasn’t just the construction part David was concerned about. He was preparing the people to observe each festival the Israelites were commanded to commemorate. And that wouldn’t be possible without worshippers.

Didn’t Jesus also say, “Destroy this temple, and I will raise it again in three days.” (John 2:19) The essence of the temple is worship and it is only possible by having people that will worship God in spirit and truth. (John 4:24) Are we worshippers or worship observers? How can we have true worship?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1 JUL  
화 Tue

## 제사장들의 갈래와 제비 뽑기

The Divisions of  
Priests and casting  
lots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24장



새366장(통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레위 족속의 명단을 파악하고 나자, 다시 아론의 자손의 갈래도 명백히 한다.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아들들로 총 24갈래로 삼아, 그들의 자손들이 돌아가며 제사장 임무를 수행한다.

### 역대기상 24:1-19

1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2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3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4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열여섯 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여덟 명이라

5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6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7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림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8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9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아민이요

10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11 아홉째는 예수야요 열째는 스가냐요

12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13 열셋째는 흠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14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15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함비세스요

16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17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18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야라

19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 Reading insight

After grasping the list of Levites, the division of Aaron's descendants is made clear again. The two sons of Aaron, Eleazar and Ithamar, whose sons make up total 24 divisions. Their descendants rotate and perform priestly duties.

### 1 Chronicles 24:1-19

**1** The divisions of the sons of Aaron were these. The sons of Aaron: Nadab, Abihu, Eleazar, and Ithamar.

**2** But Nadab and Abihu died before their father and had no children, so Eleazar and Ithamar became the priests.

**3** With the help of Zadok of the sons of Eleazar, and Ahimelech of the sons of Ithamar, David organized them according to the appointed duties in their service.

**4** Since more chief men were found among the sons of Eleazar than among the sons of Ithamar, they organized them under sixteen heads of fathers' houses of the sons of Eleazar, and eight of the sons of Ithamar.

**5** They divided them by lot, all alike, for there were sacred officers and officers of God among both the sons of Eleazar and the sons of Ithamar.

**6** And the scribe Shemaiah, the son of Nethanel, a Levite, recorded them in the presence of the king and the princes and Zadok the priest and Ahimelech the son of Abiathar and the heads of the fathers' houses of the priests and of the Levites, one father's house being chosen for Eleazar and one chosen for Ithamar.

**7** The first lot fell to Jehoiarib, the second to Jedaiah,

**8** the third to Harim, the fourth to Seorim,

**9** the fifth to Malchijah, the sixth to Mijamin,

**10** the seventh to Hakkoz, the eighth to Abijah,

**11** the ninth to Jeshua, the tenth to Shecaniah,

**12** the eleventh to Eliashib, the twelfth to Jakim,

**13** the thirteenth to Huppah, the fourteenth to Jeshebeab,

**14** the fifteenth to Bilgah, the sixteenth to Immer,

**15** the seventeenth to Hezir, the eighteenth to Happizzaz,

**16** the nineteenth to Pethahiah, the twentieth to Jehezkel,

**17** the twenty-first to Jachin, the twenty-second to Gamul,

**18** the twenty-third to Delaiah, the twenty-fourth to Maaziah.

**19** These had as their appointed duty in their service to come into the house of the LORD according to the procedure established for them by Aaron their father, as the LORD God of Israel had commanded him.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제사장 아론에겐 네 아들이 있다.  
그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남은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된다.  
그들의 이름은? (2절)

Aaron the priest has four sons.  
Among them, Nadab and Abihu died, and the two remaining sons became priests.  
What are their names? (v. 2)

제사장 직무를 순번을 짜 돌아가며 역할을 맡겼는데, 전체 몇 갈래로 조직하였나요? (18절)

They took turns acting as priests, and how many divisions did they organize?  
(v. 18)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중앙연합감리교회, 홍진호(II)  
하이드팍한인교회, 이우민(II)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진정 거룩한 보좌 앞에 서면...

Standing in front of the holy Throne...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말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들에게서 24갈래를 만들어 그 갈래에 속한 사람들이 1년에 2번씩 돌아가면서 제사장 임무를 감당케 합니다.

왜,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았을까요?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도, 제비를 뽑아(6절) 제사장 일을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맡겼는데,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나요?

제사장은 속죄일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날 순번을 맡은 제사장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면 죽게 됩니다(레위기 15:31). 성소의 향불을 잘못 다루어도 죽게 됩니다(레 10:2). 예배를 적당히, 소홀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예배자인가요? 예배 관전자인가요?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야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갔다가 죽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감사와 감격의 느낌이 무뎠지지는 않았나요? 다윗은 거룩 경험의 축복을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David did not let a person take on the role of priest as he prepared to build a temple. The sons of Aaron, Eleazar and Ithamar, made 24 divisions and those belonging to the division rotated twice a year to fulfill the priesthood. Why didn't David entrust the role of priest to only one person? In setting the order, they drew the lot (v. 6) and left the priestly work in turn, so why did they do it? What challenge do we have, called a royal priest (1 Peter 2:9)?

The priest must enter the Most Holy Place on the Day of Atonement. If the priest in charge of that day fails to set apart for himself and remains unclean, he dies (Leviticus 15:31). Even if he mishandles the incense of the sanctuary, he dies (Leviticus 10:2); they cannot afford to worship improperly. They have to risk their own lives.

How do we worship? Are you a worshiper? Are you a worship spectator? Only when we wholeheartedly stand before God's holy throne will we experience true recovery. If we go out to the throne of God in an unclean state and perish, how will we prepare for worship? Hasn't the feeling of gratitude and thrill that Jesus died for you instead dwindled? David doesn't want one person from monopolizing the blessing of spiritual experienc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2 JUL  
수 Wed

## 성전 찬양대도 제비 뽑아 세우다

The temple  
musicians are  
appointed to their  
service by means  
of sacred lots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25장



새323장(통355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다윗은 성전 찬양대도 조직적으로 역할을 맡긴다.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이 그 일을 맡는다. 제사장들과 같이 24개 갈래로.

### 역대기상 25:1-15

**1**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2**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3**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맛디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4**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맛다냐와 웃시엘과 스브엘과 예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갓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웃이라

**5**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 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6**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와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7**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이백팔십팔 명이라

**8**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9**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십이 명이요

**10**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11**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12**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13**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14**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15**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 Reading insight

The temple choir is organized by King David. The descendants of Asaph, Heman, and Jeduthun take on the task. The choir consist of 24 branches like priests.

### 1 Chronicles 25:1-15

**1** David and the chiefs of the service also set apart for the service the sons of Asaph, and of Heman, and of Jeduthun, who prophesied with lyres, with harps, and with cymbals. The list of those who did the work and of their duties was:

**2** Of the sons of Asaph: Zaccur, Joseph, Nethaniah, and Asharelah, sons of Asaph, under the direction of Asaph, who prophesi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king.

**3** Of Jeduthun, the sons of Jeduthun: Gedaliah, Zeri, Jeshaiiah, Shimei, Hashabiah, and Mattithiah, six, under the direction of their father Jeduthun, who prophesied with the lyre in thanksgiving and praise to the LORD.

**4** Of Heman, the sons of Heman: Bukkiah, Mattaniah, Uzziel, Shebuel and Jerimoth, Hananiah, Hanani, Eliathah, Giddalti, and Romamti-ezer, Joshbekashah, Mallothi, Hothir, Mahazioth.

**5** All these were the sons of Heman the king's seer, according to the promise of God to exalt him, for God had given Heman fourteen sons and three daughters.

**6** They were all under the direction of their father in the music in the house of the LORD with cymbals, harps, and lyres for the service of the house of God. Asaph, Jeduthun, and Heman were under the order of the king.

**7** The number of them along with their brothers, who were trained in singing to the LORD, all who were skillful, was .

**8** And they cast lots for their duties, small and great, teacher and pupil alike.

**9** The first lot fell for Asaph to Joseph; the second to Gedaliah, to him and his brothers and his sons, twelve;

**10** the third to Zaccur, his sons and his brothers, twelve;

**11** the fourth to Izri, his sons and his brothers, twelve;

**12** the fifth to Nethaniah, his sons and his brothers, twelve;

**13** the sixth to Bukkiah, his sons and his brothers, twelve;

**14** the seventh to Jesharelah, his sons and his brothers, twelve;

**15** the eighth to Jeshaiiah, his sons and his brothers, twelve;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성전 찬양대는 누구의 자손들이 맡게 되었나요? (1절)

Whose descendants did the temple choir take on? (v. 1)

책임을 맡길 때에 초보자나 고수나 구별을 두지 않기 위해 순번을 어떻게 정했나요? (8절)

How were they appointed to their term of service to make no distinction between beginners, masters, and others when entrusting responsibilities? (v. 8)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집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러브연합감리교회, 김다니엘(TX)  
새빛연합감리교회, 정기영(OK)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예배엔 초보자, 고수가 따로 없다

There are no beginners or masters for worshipping God

성전 찬양대가 전문적으로 세워지는데,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직무를 맡기는데, 다윗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언급됩니다.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1절). 둘째, 순번은 제비를 뽑아서 정했다고 했는데,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제자이나, 구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8절). 왜 그랬을까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게 됩니다.

나는 초보자니까, 나는 아직 배우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핑계를 대거나, 또는 적당히 빠질 수가 없습니다. 군대 지도자들도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성전 찬양대는 군악대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성전 예배가 영적 전쟁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목회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핑계를 둘러댈 수가 없습니다.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반주를 하시는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악보만 주면 언제나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고수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매번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리는 현장엔 초보자, 고수가 따로 없다. 모두가 예배자일 뿐이라고.

The temple choir is organized professionally, with two things to notice. First, not only David, but others are involved in the assignment. “David and the military leaders…” (v. 1). Second, it is said that their term of service is chosen by drawing lots, so that it is not to be distinguished regardless their status of masters, beginners, teachers or learners (v. 8). I wondered why and asked God of His intention.

Therefore, no one could make excuse of not being part of it regardless whether he was a beginner or still a learner. The military leaders also participated in this work, so the temple choir appeared to end up like a military band. Temple worship could proceed with an atmosphere of spiritual warfare.

There are blessings in serving God as a pastor. In any case, I can't neglect worship. There is no right excuse if I don't do my best. Since I first received the pastoral ordination, and it is still the same now. This is a story I heard from Mrs. Kwon, who is a pianist for the worship service. Even though she is a master who can always play the piano with just the sheet music, she said “Pastor, I cannot come for worship service without practicing properly every time.” There are no beginners or masters in worshipping God. Everyone is just a worshiper.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3 JUL  
목 Thu

## 성전 문지기가 지도 건축 계획에 포함되다

Even temple  
gatekeepers are  
included  
in the temple  
construction plan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26장



새351장(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는 계속된다. 성전 문지기, 성전 공간 관리 인, 그 외 서기관, 재판관으로 일반행정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모두 예배를 위함이다.

### 역대기상 26:10 -21

10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11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 라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세 명이더라

12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13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14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라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15 오벵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공간에 뽑혔으며

16 습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래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17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공간에는 둘씩이며

18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19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20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공간과 성물 공간을 맡았으며

21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 Reading insight

David continues to prepare for the temple construction. Temple gatekeepers, temple interrogators, scribes, judges and administrators are all assigned in order to develop corporate worship service.

### 1 Chronicles 26:10 -21

**10** And Hosah, of the sons of Merari, had sons: Shimri the chief (for though he was not the firstborn, his father made him chief),

**11** Hilkiah the second, Tebaliah the third, Zechariah the fourth: all the sons and brothers of Hosah were thirteen.

**12** These divisions of the gatekeepers, corresponding to their chief men, had duties, just as their brothers did, ministering in the house of the LORD.

**13** And they cast lots by fathers' houses, small and great alike, for their gates.

**14** The lot for the east fell to Shelemiah. They cast lots also for his son Zechariah, a shrewd counselor, and his lot came out for the north.

**15** Obed-edom's came out for the south, and to his sons was allotted the gatehouse.

**16** For Shuppim and Hosah it came out for the west, at the gate of Shallecheth on the road that goes up. Watch corresponded to watch.

**17** On the east there were six each day, on the north four each day, on the south four each day, as well as two and two at the gatehouse.

**18** And for the colonnade on the west there were four at the road and two at the colonnade.

**19** These were the divisions of the gatekeepers among the Korahites and the sons of Merari.

**20** And of the Levites, Ahijah had charge of the treasures of the house of God and the treasures of the dedicated gifts.

**21** The sons of Ladan, the sons of the Gershonites belonging to Ladan, the heads of the fathers' houses belonging to Ladan the Gershonite: Jehieli.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문지기는 레위의 세 아들 자손 중, 누구와 누구의 자손 중에서 세워지나요? (10절)

Among the descendants of Levi's three sons, whom and whose descendants were selected for gatekeepers? (v.10)

성전 공간과 성물 공간을 지키도록 임무를 받은 사람들은 레위의 아들 중에 누구의 자손인가요? (21절)

Who were the sons of the Levites who had been tasked with protecting the temple and the sacred places? (v.21)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오콜라호마한인제일 KUMC, 엄준노(OK)  
텔사한인연합감리교회, 손태원(OK)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신앙의 문지기, 신앙의 모델

The faith of Gatekeeper, a model of faith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에는 성전 문지기와 공간을 맡은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성전 예배라면, 찬양대, 제사장은 당연히 준비해야 하겠지만, 그리고 성전 공간을 맡은 사람들도 성전 예배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으로 난, 네 개의 문뿐만 아니라, 서쪽 문의 회랑에 네 사람, 길가의 회랑에 두 사람을 배치합니다(18절). 그렇게 세운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 특히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부정한 자가 들어왔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게 될 수 있기에 문지기를 세운 것입니다. 회랑에까지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은 철저하게 지키도록 한 것 같습니다. 영국 버킹검 궁전 앞에 문지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복궁 앞에 문지기가 있습니다. 자세가 분명합니다. 걷는 모습도 분명합니다. 그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궁을 지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의 자세를 지켜주는 것도 같습니다. 성전 문지기, 신앙의 모범, 모델이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David's preparation to build the temple included the temple gatekeepers and even those in charge of the treasuries of the house of God. If it is for temple worship service, of course, a choir and priests should involve in preparation, and it is also understandable that those in charge of the treasuries of the house of God are part of the team. However,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why the temple gatekeepers are included. Moreover, four gatekeepers were placed in the corridor of the west gate, and two gatekeepers in the corridor on the side of the road, as well as four gates to the north and south of the temple (v.18). I wonder why it was set up like that.

Since the temple is a holy place, they had to prevent anyone, especially the unclean, from entering. The gatekeepers were appointed because the unclean could come in and be dead by the wrath of the holy God. Having a gatekeeper up to the corridor seems to have kept the temple free from intruders.

There are gatekeepers in front of Buckingham Palace in England. There are gatekeepers in front of Gyeongbokgung Palace in Korea. Their posture is straight. It is also noticeable how they march. When you see them, there is something that touch your feeling. What is my attitude? The gatekeeper is the one who keeps the palace, but at the same time, it could be a symbol that guards the attitude of my heart. I wish there were many models of faith keepers like the temple gatekeeper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4 JUL  
금 Fri

# 다윗, 군대와 백성의 지도자까지 포함시키다

David Includes  
Leaders of Army  
and People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27-28장



새312장(통341장)  
너 하나님께 이끄러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이제, 역대기 역사가는 다윗의 군대 조직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왕실 재산 관리자와 개인 고문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성전 건축 계획에 포함시켰다면 이것은 어떤 뜻일까 궁금하다.

## 역대기상 27:1-15

1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이만 사천 명씩이라 일 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2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삼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라

3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4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아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5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라

6 이 브나야는 삼십 명 중에 용사요 삼십 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7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8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훗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9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10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11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브개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12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13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래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14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15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웃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대니 그 반에 이만 사천 명이었던라

## Reading insight

Now, the writer of Chronicles specifically reports David's military organization, leaders of each tribe, and even royal property managers and personal advisers. I wonder what this would mean if they were included in the temple building plan.

### 1 Chronicles 27:1–15

**1** This is the number of the people of Israel, the heads of fathers' houses, the commanders of thousands and hundreds, and their officers who served the king in all matters concerning the divisions that came and went, month after month throughout the year, each division numbering 24,000:

**2** Jashobeam the son of Zabdiel was in charge of the first division in the first month; in his division were 24,000.

**3** He was a descendant of Perez and was chief of all the commanders. He served for the first month.

**4** Dodai the Ahohite was in charge of the division of the second month; in his division were 24,000.

**5** The third commander, for the third month, was Benaiah, the son of Jehoiada the chief priest; in his division were 24,000.

**6** This is the Benaiah who was a mighty man of the thirty and in command of the thirty; Ammizabad his son was in charge of his division.

**7** Asahel the brother of Joab was fourth, for the fourth month, and his son Zebadiah after him; in his division were 24,000.

**8** The fifth commander, for the fifth month, was Shammuth the Izrahite; in his division were 24,000.

**9** Sixth, for the sixth month, was Ira, the son of Ikkesh the Tekoite; in his division were 24,000.

**10** Seventh, for the seventh month, was Helez the Pelonite, of the sons of Ephraim; in his division were 24,000.

**11** Eighth, for the eighth month, was Sibbecai the Hushathite, of the Zerahites; in his division were 24,000.

**12** Ninth, for the ninth month, was Abiezer of Anathoth, a Benjaminite; in his division were 24,000.

**13** Tenth, for the tenth month, was Maharai of Netophah, of the Zerahites; in his division were 24,000.

**14** Eleventh, for the eleventh month, was Benaiah of Pirathon, of the sons of Ephraim; in his division were 24,000.

**15** Twelfth, for the twelfth month, was Heldai the Netophathite, of Othniel; in his division were 24,000.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군대조직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한 갈래가 몇 명인가요? (1절)

In military organizations, the soldiers of each division worked once a month, but how many people were in a division? (v. 1)

전체 군대를 몇 개의 갈래로 조직했나요? (15절)

How many divisions did the entire army have? (v. 15)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집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 김관영(OK)  
오래곤 우리연합감리교회, (OR)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세상을 살리는 것, 예배다

It is worship that saves the world

이제 역대기 역사가는 다윗의 군대 조직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왕실 재산 관리자와 개인 고문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성전 예배를 위해 제사와 성전 찬양대를 순번제로 임무를 담당하게 했듯이, 군대도 순번제로 근무를 하게 합니다. 성전 건축 계획에 이렇게 군대 조직까지 포함시켰다면 이것은 어떤 뜻일까 궁금하게 됩니다. 더구나 성전 찬양대를 구성하는 데에 군대 지휘관들이 참여한 것을 떠올리면(역사 25:1), 다윗이 구상했던 큰 그림이 보이는 듯합니다.

자기중심주의가 커져가는 이 시대에, 이러한 구상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열어줄까요?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은 성전 예배입니다. 예배가 빠르게 살아야, 전체 이스라엘 왕국도 든든히 지켜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삶의 현장(세속)이 예배(영성)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세속은 영적이어야 하고 영성은 세속의 모든 현장에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영적 빛으로 가득 차고,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의 질서와 영성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

Now Chronicles historians specifically reveal David's military organization, leaders of each tribe, and even royal property managers and personal advisers. Just as the priests and temple choirs were assigned to serve for the temple service, the military also worked for the temple. I wonder what this would mean if David mobilized the military in his temple building plan. Moreover, recalling the involvement of the military commanders in the formation of the Temple Choir (1 Chronicles 25:1), it shows the big picture that David had envisioned.

In this age of increasing self-centeredness, what vision will this initiative open to us?

The foundation of the kingdom of Israel is temple worship. It means that if they worship properly, the entire kingdom of Israel will be secured. The field of life (the secular world) is not separated from worship (spirituality). It means that the world must be spiritual and that spirituality must touch every field in the life.

God bestows a longing to each heart. When we worship, our bodies and minds are filled with the sacred light of God, and now the harmony and spirituality of worship are brought to life wherever we go.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5 JUL  
토 Sat

## 다윗의 마무리, 감사 찬양

David's finale,  
thanksgiving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상 1 Chronicles  
29장



새50장(통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은 자신도 힘껏 하나님께 드렸지만, 동시에 백성들에게도 힘껏 동참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고백을 전합니다.

### 역대기상 29:10-20

**10**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이심이니이다

**12**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5**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16**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17** 나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18**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19**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20**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 Reading insight

David, who laid the groundwork for the temple, offered himself to God with all his might, but at the same time, he invited the people to participate. And he delivered his confession of faith.

### 1 Chronicles 29:10-20

**10** Therefore David blessed the LORD in the presence of all the assembly. And David said: “Blessed are you, O LORD, the God of Israel our father, forever and ever.

**11** Yours, O LORD, is the greatness and the power and the glory and the victory and the majesty, for all that is in the heavens and in the earth is yours. Yours is the kingdom, O LORD, and you are exalted as head above all.

**12** Both riches and honor come from you, and you rule over all. In your hand are power and might, and in your hand it is to make great and to give strength to all.

**13** And now we thank you, our God, and praise your glorious name.

**14** “But who am I, and what is my people, that we should be able thus to offer willingly? For all things come from you, and of your own have we given you.

**15** For we are strangers before you and sojourners, as all our fathers were. Our days on the earth are like a shadow, and there is no abiding.

**16** O LORD our God, all this abundance that we have provided for building you a house for your holy name comes from your hand and is all your own.

**17** I know, my God, that you test the heart and have pleasure in uprightness. In the uprightness of my heart I have freely offered all these things, and now I have seen your people, who are present here, offering freely and joyously to you.

**18** O LORD,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Israel, our fathers, keep forever such purposes and thoughts in the hearts of your people, and direct their hearts toward you.

**19** Grant to Solomon my son a whole heart that he may keep your commandments, your testimonies, and your statutes, performing all, and that he may build the palace for which I have made provision.”

**20** Then David said to all the assembly, “Bless the LORD your God.” And all the assembly blessed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and bowed their heads and paid homage to the LORD and to the king.

## 말씀 속으로

### Engaging with Words

다윗은 찬양으로 자신의 신앙고백을 드린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 하나요?

(11절)

David gives his confession of faith with praise. Who owns everything in this world?

(v. 11)

다윗은 축복을 받는 가장 귀한 비밀을 나눈다. 어떤 내용인가요?

(18절)

David shares the most precious secret about blessing. What is it? (v.18)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오광석(OR)  
시애틀한인연합감리교회, 박세웅(W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헌금이 아직 부담스러우시다면...

If the giving is still burdensome...

다윗은 찬양으로 자신의 신앙고백을 드린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 하나요? “주님,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11, 16절). 이 고백이 분명해지자, 하나님께 드린 것이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예,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늦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신 기쁨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드림에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드리는 것이 부담이 없는 이유를 짚어보았더니, 그것은 하나님께 제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란 믿음!

자기 소유의 경계선이 분명한 시대입니다. 기쁨과 축복의 세계가 잘 열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받을 그릇이 인색해서 작기 때문입니다. 넉넉하게 드리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David offers his confession of faith with praise. Who owns everything in this world? “Everything in the heavens and on earth is yours, O Lord, and this is your kingdom.” (vs. 11, 16). When his confession became heartfelt, David said it is a joy to give to God. “What am I, and what are my people, and has God given us the strength to give with abundant joy?”

Although my faith journey started out late in my life, there are some of the joys that God has given me. God made me give with joy, not stingy to the offering. I wondered why it is not burdensome to give for the church, because it is the faith that God has given me. It is a belief that “God will provide everything”!

The present age is the time when the boundary of one’s possession is clear. The reason why the opportunities of joy and blessings don’t open up to us is because we do too many profit and loss calculations.

Those who are stingy have a small bowl to receive even if God blesses them. I see God bless those who give generously. God even bless their children.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마귀는 방학이 없습니다

정영민 목사 (포도원교회, CA)

방학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에는 휴가를 가지는 가정들도 많고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은 긴 방학을 자녀들과 지낼 것이 염려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영육 간에 쉼을 얻고 재충전한 기회를 갖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회입니다. 개인의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름 휴가철을 맞으면서 기본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족 간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족여행이나 가족행사가 집안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분들은 축복으로 여기시고, 지나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좋은 전통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여의치 못한 가정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꼭 기회를 만들어서 일상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잠시 후면 부모 곁을 떠납니다. 나중에는 돈이 있어도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는 여행을 가더라도 꼭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집을 떠나서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가끔 보면 휴가라고 주일예배도 거르고 즐기는 분들이 있는데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표정과 안색마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성수는 신앙 생활을 지켜주는 기차의 레일과 같은 것입니다. 레일을 벗어나면 기차가 갈 수 없듯이 주일성수를 등한시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셋째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고 영혼을 살피우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는 교회의 훈련사역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자유롭게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그동안 읽지 못했던 신앙서적을 펼쳐서 영혼을 살피우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방학이 없습니다. 휴가철 느슨해진 마음은 마귀가 공격하기 좋은 공격 대상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깨여서 평소에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을 도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VIP를 집으로 청한다든지, 단기봉사선교에 동참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영적으로 깨어 있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부러 마귀를 의식하며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훈련된 사람도 게으름과 타락, 그리고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건강하고 보람 있는 휴가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7 JUL  
월 Mon

## 솔로몬의 통치, 예배로 시작하다

Solomon's reign  
begins with worship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1장



새214장(통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솔로몬의 왕위는 굳건히 세워진다. 아버지 다윗의 덕택이다. 솔로몬은 자신의 통치를 어떻게 시작할까 궁금하다.

### 역대기하 1:1-13

**1**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2**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3**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4**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랴트아림에서부터 그 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5**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와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6**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7** 그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8**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9** 여호와 하나님이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11**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네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13**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 Reading insight

Thanks to father David, Solomon's throne is firmly established.  
I wonder how Solomon's own rule will set in motion.

## 2 Chronicles 1:1-13

<sup>1</sup> Solomon the son of David established himself in his kingdom, and the LORD his God was with him and made him exceedingly great.

<sup>2</sup> Solomon spoke to all Israel, to the commanders of thousands and of hundreds, to the judges, and to all the leaders in all Israel, the heads of fathers' houses.

<sup>3</sup> And Solomon, and all the assembly with him, went to the high place that was at Gibeon, for the tent of meeting of God, which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had made in the wilderness, was there.

<sup>4</sup> (But David had brought up the ark of God from Kiriath-jearim to the place that David had prepared for it, for he had pitched a tent for it in Jerusalem.)

<sup>5</sup> Moreover, the bronze altar that Bezalel the son of Uri, son of Hur, had made, was there before the tabernacle of the LORD. And Solomon and the assembly sought it out.

<sup>6</sup> And Solomon went up there to the bronze altar before the LORD, which was at the tent of meeting, and offered a thousand burnt offerings on it.

<sup>7</sup> In that night God appeared to Solomon, and said to him, "Ask what I shall give you."

<sup>8</sup> And Solomon said to God, "You have shown great and steadfast love to David my father, and have made me king in his place.

<sup>9</sup> O LORD God, let your word to David my father be now fulfilled, for you have made me king over a people as numerous as the dust of the earth.

<sup>10</sup> Give me now wisdom and knowledge to go out and come in before this people, for who can govern this people of yours, which is so great?"

<sup>11</sup> God answered Solomon, "Because this was in your heart, and you have not asked possessions, wealth, honor, or the life of those who hate you, and have not even asked long life, but have asked wisdom and knowledge for yourself that you may govern my people over whom I have made you king,

<sup>12</sup> wisdom and knowledge are granted to you. I will also give you riches, possessions, and honor, such as none of the kings had who were before you, and none after you shall have the like."

<sup>13</sup> So Solomon came from the high place at Gibeon, from before the tent of meeting, to Jerusalem. And he reigned over Israel.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솔로몬 당시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성막, 곧 회막은 어디에 있었나요? (3절)

Where was the tabernacle of God made in the wilderness at the time of Moses? (v. 3)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원하는 것을 물었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한다고 했나요? (10절)

When God appeared to Solomon and asked what he wanted, what did Solomon ask for? (v. 10)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좋은씨앗교회, 정요셉(WA)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 박용규(WA)  
목회자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꼭 솔로몬처럼 안 해도 됩니다

You don't have to be like Solomon

솔로몬의 왕위가 굳건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덕택입니다. 그럼에도 나이가 어리기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젊기에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 통치의 첫 행보를 무엇으로 시작할지 궁금합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행보는 하나님의 회막에 와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7절)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이죠. 솔로몬은 분명히 합니다. 첫째, 자기가 다스릴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우리 같으면 무엇을 구할 것 같은가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놓아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그때 원하는 것을 구하시면 됩니다. 꼭 솔로몬처럼 의젓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직, 솔직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Thanks to father David, Solomon's throne is firmly established. Sometimes, he may not know what to do because he is young. Or he may be too proud because of his youth. It is imperative how Solomon will break ground with the first step of his reign. Solomon's first step was a worship at the Tent of God. As he worshipped, God appeared to Solomon at night and said, "Ask for whatever you want me to give you" (v. 7) Solomon asked God for wisdom and knowledge. What you want, what you desire, and what you ask are what you are. Solomon makes it clear. First, he says that the people he will rule are God's people, not his people. Second, because they are God's people, he seeks wisdom and knowledge of how to govern them.

What are you going to seek if you were Solomon? Many believe in God as their Lord and confess it, but leave God as a scarecrow. Worship God first. Then you can feel the presence of God and hear what God is saying. Then you can get what you want. You don't have to act like Solomon. God will never turn away from someone who seeks with honesty and sincerity.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8 JUL  
화 Tue

##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

Solomon prepares  
for the construction  
and writes a letter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2장



새212장(통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부탁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준비가 다 되었는데, 두로의 히람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평소 관계도 준비과정 중 하나인가 봅니다.

### 역대기하 2:1-12

**1** 솔로몬이 여호와와 이름의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2** 솔로몬이 이에 집꾼 칠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팔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삼천 육백 명을 뽑고

**3**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4**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5**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6**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7**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을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8**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9**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재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10**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췌은 밀 이만 고르와 보리 이만 고르와 포도주 이만 맛과 기름 이만 맛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11**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12**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 Reading insight

Solomon starts to build the temple requested by his father David. But he is not ready yet, he sends a message to King Hiram at Tyre. The human relationship is considered as one of the preparations.

## 2 Chronicles 2:1-12

**1** Now Solomon purposed to build a temple for the name of the LORD, and a royal palace for himself.

**2** And Solomon assigned 70,000 men to bear burdens and 80,000 to quarry in the hill country, and 3,600 to oversee them.

**3** And Solomon sent word to Hiram the king of Tyre: “As you dealt with David my father and sent him cedar to build himself a house to dwell in, so deal with me.

**4** Behold, I am about to build a house for the name of the LORD my God and dedicate it to him for the burning of incense of sweet spices before him, and for the regular arrangement of the showbread, and for burnt offerings morning and evening, on the Sabbaths and the new moons and the appointed feasts of the LORD our God, as ordained forever for Israel.

**5** The house that I am to build will be great, for our God is greater than all gods.

**6** But who is able to build him a house, since heaven, even highest heaven, cannot contain him? Who am I to build a house for him, except as a place to make offerings before him?

**7** So now send me a man skilled to work in gold, silver, bronze, and iron, and in purple, crimson, and blue fabrics, trained also in engraving, to be with the skilled workers who are with me in Judah and Jerusalem, whom David my father provided.

**8** Send me also cedar, cypress, and algum timber from Lebanon, for I know that your servants know how to cut timber in Lebanon. And my servants will be with your servants,

**9** to prepare timber for me in abundance, for the house I am to build will be great and wonderful.

**10** I will give for your servants, the woodsmen who cut timber, 20,000 cors of crushed wheat, 20,000 cors of barley, 20,000 baths of wine, and 20,000 baths of oil.”

**11** Then Hiram the king of Tyre answered in a letter that he sent to Solomon, “Because the LORD loves his people, he has made you king over them.”

**12** Hiram also said, “Blessed be the LORD God of Israel, who made heaven and earth, who has given King David a wise son, who has discretion and understanding, who will build a temple for the LORD and a royal palace for himself.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나요? (3절)

Whom does Solomon write to as he begins building the temple? (v. 3)

솔로몬의 편지를 읽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3-10절)

How do you feel after reading Solomon's letter? (vs. 3-10)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송종남(DE)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 정남성(MD)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평소, 믿음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Everyday relationships make difference

아버지 다윗이 부탁한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원할 사람들을 모아 준비시키는 동시에 두로의 히람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성전 건축의 이유를 밝힙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나 지나 지켜야 할 일... 하나님 앞에 향이나 피워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고 신실합니다. 솔로몬의 편지는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자, 히람 왕의 답신도 흔쾌하게 응답합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부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좋은 뜻이 있을 때 부탁을 드릴 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덕을 쌓았겠지만, 솔로몬도 믿음과 존중의 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부탁을 드릴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평소에 부탁을 드려도 될, 믿음의 관계를 쌓아오셨나요? 급할 때만 찾으시나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 부탁의 편지를 띄우신다면 어떤 내용을 써 보내시겠습니까?

Solomon finally begins building the temple that his father David asked for. At the same time as he mobilizes people in Israel, he writes a letter to King Hiram at Tiro. He identifies the reason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God has commanded Israel to do these things forever. ... Not even the highest heavens can contain him! So who am I to consider building a Temple for him, except as a place to burn sacrifices to him?” He is humble and faithful. Solomon’s letter moves people’s hearts. Then, King Hiram responds to his letter happily.

Solomon could not appeal to anyone else to accomplish what he asked. When Solomon had a great plan, there was someone whom he could plead for help. Father David might have established a tie with King Hiram, but Solomon also continued a relationship of faith and respect with Hiram. When you need help, does anyone have a favor for you?

What is God like to you? Have you built a relationship of faith so that you can ask for help? Do you seek God only when you are under hardship? What would you write if you sent a letter of favor to God this week?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29 JUL  
수 Wed

## 성전 터, 어떤 곳이었나?

Where was the site  
of the temple?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3장



새216장(통356장)  
성자의 귀한 몸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역대기 역사가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다시 확인한다. 모리아 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다. 두 개의 사건을 떠올린 이유가 궁금하다.

### 역대기하 3:1-14

**1**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2**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3**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육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며

**4**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백이십 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5**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6**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7**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8**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도 이십 규빗이라 순금 육백 달란트로 입혔으니

**9** 못 무게가 금 오십 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10**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11**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이십 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다섯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12**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13**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이십 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14**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베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 Reading insight

As the temple construction launches, and the author of Chronicles reaffirms where the site is: Mount Moriah and Araunah 's threshing floor. I wonder why the author remembers the two events associated with the site.

## 2 Chronicles 3:1-14

**1** Then Solomon began to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in Jerusalem on Mount Moriah, where the LORD had appeared to his father David. It was on the threshing floor of Araunah the Jebusite, the place provided by David.

**2** He began building on the second day of the second month in the fourth year of his reign.

**3** The foundation Solomon laid for building the temple of God was sixty cubits long and twenty cubits wide (using the cubit of the old standard).

**4** The portico at the front of the temple was twenty cubits long across the width of the building and twenty cubits high. He overlaid the inside with pure gold.

**5** He paneled the main hall with juniper and covered it with fine gold and decorated it with palm tree and chain designs.

**6** He adorned the temple with precious stones. And the gold he used was gold of Parvaim.

**7** He overlaid the ceiling beams, doorframes, walls and doors of the temple with gold, and he carved cherubim on the walls.

**8** He built the Most Holy Place, its length corresponding to the width of the temple—twenty cubits long and twenty cubits wide. He overlaid the inside with six hundred talents of fine gold.

**9** The gold nails weighed fifty shekels. He also overlaid the upper parts with gold.

**10** For the Most Holy Place he made a pair of sculptured cherubim and overlaid them with gold.

**11** The total wingspan of the cherubim was twenty cubits. One wing of the first cherub was five cubits long and touched the temple wall, while its other wing, also five cubits long, touched the wing of the other cherub.

**12** Similarly one wing of the second cherub was five cubits long and touched the other temple wall, and its other wing, also five cubits long, touched the wing of the first cherub.

**13** The wings of these cherubim extended twenty cubits. They stood on their feet, facing the main hall.

**14** He made the curtain of blue, purple and crimson yarn and fine linen, with cherubim worked into it.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 그 자리에 산이란 이름이 붙어 있다. 어떤 산인가요? (1절)

Solomon begins to build the temple. The temple site is on a mountain. What mountain is it? (v. 1)

성전터가 또 옛날에 누구의 타작 마당이었나요? (1절)

Whose threshing floor is for the temple site? (v. 1)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집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배혁(TX)  
그린빌연합감리교회, 신규석(SC)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아직도 억지로 드리는 예배라면...

If it's still worship service you're not willing to attend ...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대기 역사가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확인해 줍니다. 모리아 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한 모리아 산, 그리고 다윗이 백성을 벌하지 마시고 나와 내 집안을 벌해 달라고 한 오르난의 타작 마당.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성전을 보통 '희생과 용서의 자리'라고 합니다. 맞지만, 억지로 드리는 희생이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 목숨을 내어 놓되, <기꺼이>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을 <기꺼이> 내어 놓으십니다. 희생과 용서는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만나주시는 만남의 자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알아 갈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생명까지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아직도 찢찢하게 남아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증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훈련과 예배 드림의 자리로 나가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가면 모든 것이 <기꺼이> 풀릴 것입니다.

Solomon begins building the temple. However, the author of Chronicles confirms where this temple site is located: Araunah's threshing floor in Mount Moriah. Mount Moriah, where Abraham promised to sacrifice his son Isaac, and Araunah's threshing floor where David asked God not to punish the people, but to punish him and his household. What do they have in common? The temple is usually called the "place of sacrifice and forgiveness". That's right, but if you have the hard feeling about compulsory sacrifice, you need to check whether you really believe in God or really encountered God. Abraham and David have something in common, that is willingness to offer their lives. Then God willingly puts His heart at disposal. The sacrifice and forgiveness are accessible, but more importantly, the temple is the meeting place where the God of goodness is willing to come to us.

There is something to confess as I worship God and get to know Him: "My good Father God, I can offer willingly my life to you.", because I am getting better and better with you. If you still have a sense of conflict at your worship, it is evidence that you don't know God yet. There is no other justification. Just go to the place of discipleship and worship to get to know the Word of God. When you encounter a personal God, everything will be solve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30 JUL  
목 Thu

## 후람의 지휘하에 성물들을 만들다

Temple's furnishings  
are made under the  
direction of Hiram.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4장



새218장(통369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성전의 건물을 먼저 세우고, 다음으로 제사에 사용될 성물들을 만들었다. 순서는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특히 성물을 만든 사람이 두로의 히람 왕이 보낸 후람임을 밝힌다.

### 역대기하 4:1-11

1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십 규빗이며

2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십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3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열 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4 그 바다를 놋쇠 황소 열두 마리가 받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5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빛을 담겠으며

6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7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8 또 상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9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10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11 후람이 또 솔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 Reading insight

The temple building was erected first, followed by the manufacture of furnishings to be used for the sacrifice. In particular, the person who made temple's furnishings was disclosed as Hiram from King Hiram at Tire.

## 2 Chronicles 4:1-11

**1** He made a bronze altar twenty cubits long, twenty cubits wide and ten cubits high.

**2** He made the Sea of cast metal, circular in shape, measuring ten cubits from rim to rim and five cubits high. It took a line of thirty cubits to measure around it.

**3** Below the rim, figures of bulls encircled it—ten to a cubit. The bulls were cast in two rows in one piece with the Sea.

**4** The Sea stood on twelve bulls, three facing north, three facing west, three facing south and three facing east. The Sea rested on top of them, and their hindquarters were toward the center.

**5** It was a handbreadth in thickness, and its rim was like the rim of a cup, like a lily blossom. It held three thousand baths.

**6** He then made ten basins for washing and placed five on the south side and five on the north. In them the things to be used for the burnt offerings were rinsed, but the Sea was to be used by the priests for washing.

**7** He made ten gold lampstands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for them and placed them in the temple, five on the south side and five on the north.

**8** He made ten tables and placed them in the temple, five on the south side and five on the north. He also made a hundred gold sprinkling bowls.

**9** He made the courtyard of the priests, and the large court and the doors for the court, and overlaid the doors with bronze.

**10** He placed the Sea on the south side, at the southeast corner.

**11** And Hiram also made the pots and shovels and sprinkling bowls. So Hiram finished the work he had undertaken for King Solomon in the temple of God: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성전의 건물이 먼저 세워지고 다음으로 만든 것은 제사에 사용될 성물들이다. 성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은 무엇이었나요? (1절)

The building of the temple is built first and the next is temple's furnishings made to be used for sacrifice. What was the first thing they made? (v. 1)

이 모든 성물은 누가 만들었나요? (2, 11절)

Who made all these sacred objects? (vs.2, 11)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배연택(SC)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 박진원(G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신앙인의 외교역량

Diplomacy of faithful believers

성전의 건물을 먼저 세우고 나서, 다음으로 제사에 사용될 성물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성물을 만든 사람이 두로의 히람 왕이 보낸 후람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2, 11절). 더욱이 열왕기(왕상 6-7장)와 달리 역대기는 핵심만을 기록했기에, 후람이 한 일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됩니다. 후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역대기 역사가가 왜 후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4-6장)를 통해서 알고 있는바에 따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일이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력을 발휘해야 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외교 역량이 필요한 것일까요? 앞에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면서, 평소,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었지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살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타인종에 대한 벽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 수준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더욱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좋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 친밀하게 거할수록 우리의 태도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The temple building is first built, and then the temple's furnishings to be used for the sacrifices are made. However, it is unusual to reveal the name of Hiram from King Hiram at Tire as the person who made temple's furnishings (vs. 2, 11). Moreover, unlike the Book of Kings (1 Kings chapters 6-7), Chronicles recorded only what was relevant, so what Hiram accomplished was more clearly highlighted. Even though Hiram was not an Israelite but a Gentile, I wonder why writers of the Chronicles are highlighting Hiram.

As we know through Ezra (chapters 4-6), the process of returning from Babylonian imprisonment and rebuilding the temple was not easy. The work of the Israelites alone did not advance. We know that they had to be diplomatic.

Does a believer need diplomatic competency? As I meditated on Chapter 2, I noticed that Solomon sent a letter to King Hiram at Tire and asked for help. Koreans have advanced in living standard a lot in the United States, but there are barriers to other ethnicities. In particular, attitudes toward non-Koreans vary according to their cultural level. If you are a Christian, you need a good attitude to treat everyone equally. The more we dwell in the Spirit of God, the better our attitude i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31 JUL  
금 Fri

## 성전이 완성되다

The LORD's temple  
was finished

### 통독본문 Reading Plan

역대기하 2 Chronicles  
5장



새84장(통96장)  
온 세상이 감감하여서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성전에 다윗이 준  
비한 성물들을 모두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실 일이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 역대기하 5:1-14

**1**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  
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공간에 두었더라

**2**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3**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4**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니라

**5**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6**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7** 제사장들이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8**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9**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 곳에 있으며

**10**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11** 이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12**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  
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  
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백이십 명이 함께 서 있  
다가

**13**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  
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섭기지 못하  
였으니 이는 여호와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 Reading insight

Solomon completes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Fill it with all the furnishings David prepared. And he offers a dedication service. But there is one more thing God has to do.

## 2 Chronicles 5:1–14

**1** When all the work Solomon had done for the temple of the LORD was finished, he brought in the things his father David had dedicated—the silver and gold and all the furnishings—and he placed them in the treasuries of God’s temple.

**2** Then Solomon summoned to Jerusalem the elders of Israel, all the heads of the tribes and the chiefs of the Israelite families, to bring up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from Zion, the City of David.

**3** And all the Israelites came together to the king at the time of the festival in the seventh month.

**4** When all the elders of Israel had arrived, the Levites took up the ark,

**5** and they brought up the ark and the tent of meeting and all the sacred furnishings in it. The Levitical priests carried them up;

**6** and King Solomon and the entire assembly of Israel that had gathered about him were before the ark, sacrificing so many sheep and cattle that they could not be recorded or counted.

**7** The priests then brought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to its place in the inner sanctuary of the temple, the Most Holy Place, and put it beneath the wings of the cherubim.

**8** The cherubim spread their wings over the place of the ark and covered the ark and its carrying poles.

**9** These poles were so long that their ends, extending from the ark, could be seen from in front of the inner sanctuary, but not from outside the Holy Place; and they are still there today.

**10** There was nothing in the ark except the two tablets that Moses had placed in it at Horeb, where the LORD made a covenant with the Israelites after they came out of Egypt.

**11** The priests then withdrew from the Holy Place. All the priests who were there had consecrated themselves, regardless of their divisions.

**12** All the Levites who were musicians—Asaph, Heman, Jeduthun and their sons and relatives—stood on the east side of the altar, dressed in fine linen and playing cymbals, harps and lyres. They were accompanied by 120 priests sounding trumpets.

**13** The trumpeters and musicians joined in unison to give praise and thanks to the LORD. Accompanied by trumpets, cymbals and other instruments, the singers raised their voices in praise to the LORD and sang: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Then the temple of the LORD was filled with the cloud,

**14** and the priests could not perform their service because of the cloud, for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emple of God.

##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하나님은 성전을 당신의 무엇으로 채우셨나요? (14절)

What did God fill the temple with? (v. 14)

하나님이 건축 완료된 성전을 영광의 구름으로 채우실 때,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은가요?

When God filled the completed temple with a cloud of glory, how would be God’s hear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 김종길(GA)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 (P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하나님의 임재가 건축을 완성합니다

God's presence completes construction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그토록 사모했던 아버지 다윗이 마련해놓은 성전 기구들을 성전에 들여놓습니다. 마침내 다윗성에 보관 중이던 여호와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의식을,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 거행하게 됩니다.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위인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지성소 안 그룹들 날개 아래에 놓았으며, 나팔을 불며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제 성전 건축은 온전히 마무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 채워졌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지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완성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마서 3:23). 하나님의 영광, 곧 따뜻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면 얼어붙었던 것이 녹기 시작하고 빛을 잃었던 마음들이 다시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완성된 성전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Solomon's temple construction was over. And the furnishings prepared by his father, David, who had longed for the temple building, were brought into the temple. Finally, Solomon devoted himself to the ceremony of bringing the ark of the covenant of Jehovah, which was kept in the city of David. As all the leaders and people watched, the Levites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on their shoulders and placed it beneath the wings of the cherubim in the Most Holy Place, blowing a trumpet and the sound of thanksgiving and praise echoed in the sky. “The Lord is good, and His kindness is eternal.”

The building of the temple now seemed to have been completed. But it wasn't over yet. Soon, the temple was filled with clouds that symbolized God's presence, and everyone experienced God's glory.

The temple is not a building. The temple is completed when the glory of God comes. “All have sinned, and have not come to the glory of God” (Romans 3:23). When you experience the glory of God, the light of God approaches you with warmth, the frozen things begin to melt and your heart that has lost the light will come alive again. This is the true beauty of the finished templ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헤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 하루 \$ 1 per day □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됩니다.**

Your \$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kumcdevotion@gmail.com

2020년 7월  
기쁨의 언덕으로

# 소그룹 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사람이 역사입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 역대기상 1:1-4, 27-28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물랐다면... 이제 알아내면 됩니다. | 역대기상 13:8-12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해피엔딩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역대기상 21:15-20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하나님의 임재가 건축을 완성합니다. | 역대기하 5:11-14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역대기상 1:1-4, 27-28

# 사람이 역사입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새528장(통318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새575장(통302장) 주님께 귀한 것 드러  
(복음성가) 우리에게겐 소원이 하나 있네

## ① 여는 질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게 되었나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 ② 본문 이해

역대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기 동안에 쓰여진 역사책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쓴다면 무엇을 기록하려고 할까요? 아마 사건부터 기록할 것입니다. 역사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사람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그리고 27-28절,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1절). 사람들의 이름이 꼭 이어지다가, 27-28절에서 “아브람, 곧 아브라함”까지 잇고는 한 호흡 쉽니다.

역대기는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자신들의 역사를 새로이 쓰면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일까요? 역대기는 역사의 중심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의 기록이 그들 역사의 핵심임을 선언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희망이라고요.

### ③ 말씀 속으로

1. 역대기는 첫 구절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나요? (1절)
2.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겠다고 생각하시나요?

### ④ 삶 속으로

1. 사람이 역사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2.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가요?

### ⑤ 암송구절 - 고린도후서 5: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⑥ 자녀와의 나눔

부모님이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역대기상 13:8-12

## 몰랐다면... 이제 알아내면 됩니다.



새273장(통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새453장(통506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복음성가) 아침 안개 눈 앞 가리듯

### ① 여는 질문

실수나 실패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 ② 본문 이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자, 다윗은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자 마자, 다윗의 마음 속에 두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소가 끄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깁니다. 그런데, 소들이 어느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뛰자 궤가 땅에 떨어지려 했고,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그 궤를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웃사가 죽게 됩니다.

사고가 생기고 이 일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역대기 역사가는 사무엘하6장과 달리, 잠시 동안 일이 중단된 채로 남겨두고, 역대기 14장에서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빈 공간의 침묵, 곧 공백으로 남겨둔 것이죠.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일이 틀어지면, 잠시 멈추는 공백의 시간,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내는 성실함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겐 항상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한 깨달음과 길을 항상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 ③ 말씀 속으로

1.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급하게 붙들었던 사람이 죽습니다. 누구인가요?(10절)
2. 나중에 다윗은 찾아냅니다. 어떤 실수를 하게 된 것인지 (역대기상 15:13). 다윗은 왜 그렇게 간단한 사실을 미리 알아보지 않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을까요?

### ④ 삶 속으로

1. 실수를 하고 나서, 새롭게 깨달아서 알게 된 것이 있나요?
2. 신앙생활도 진척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충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⑤ 암송구절 - 마태복음 6:33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 ⑥ 자녀와의 나눔

실수나 실패를 하고나서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나요?  
그때 배운 것이 있으면 무엇이었는데 말해 볼 수 있나요?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역대기상 21:15-20

# 해피엔딩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새251장(통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새570장(통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복음성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 ① 여는 질문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못하고 나서 오히려 복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험  
이 있었나요?

## ② 본문 이해

사탄은 잘 되고 있는 다윗을 그냥 지켜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인구조사를 부추겼고, 다윗은 그 부  
추김에 넘어갑니다. 자신이 부릴 수 있는 병력을 숫자로 손에 쥐려 했던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  
게 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리셨고,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재앙의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다윗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사탄의 계략은 성공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화위복!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렸  
던 것일까요?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 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 계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17절)

죄를 나에게 돌려 달라는 다윗의 신실한 요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  
다. 실수할 수 있지요. 대신 발돋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고백은 항상 사탄의 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해피엔딩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③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이 천사에게 재앙을 내리도록 허락하시고 나서 칠만명이 죽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면이 있으시 다니...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나요?
2. 사단이 부추겨서 저지른 악이지만, 다윗은 회개하면서 자기와 자기 집안이 죄값을 치루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 ④ 삶 속으로

1. 내가 실수를 하거나 법을 위반하면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인가요? 대가까지 치를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왜 그런가요?
2. 사단의 부추김이라고 알았다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결단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고 분명해질 것 같은가요? 왜지요?

### ⑤ 암송구절 - 야고보서 1:14-15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니라”

### ⑥ 자녀와의 나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죠? 잘못을 숨기고 있으면 양심이 불편합니다. 인정하고 나서 평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 4 주

•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역대기하 5:11-14**

## 하나님의 임재가 건축을 완성합니다.



새84장(통96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새368장(통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복음성가) 여기에 모인 우리

### ① 여는 질문

내가 한 계획하고 진행한 것보다 더 일이 잘된 경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있나요?

### ② 본문 이해

솔로몬의 성전건축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성전건축을 그토록 사모했던 아버지 다윗이 마련해 놓은 성전기구들을 성전에 들여놓습니다. 마침내 다윗성에 보관중이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 오는 의식을,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 거행하게 됩니다.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위인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고 지성소 안 그룹들 날개 아래에 놓았으며, 나팔을 불며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제 성전건축은 온전히 마무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 채워졌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지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완성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23). 하나님의 영광, 곧 따뜻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면 얼어붙었던 것이 녹기 시작하고 빛을 잃었던 마음들이 다시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완성된 성전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 ③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은 성전을 당신의 무엇으로 채우셨나요? (14절)
2.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완료한 것을 지켜만 보시지 않고, 영광의 구름으로 그곳을 채워 주십니다. 천상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 ④ 삶 속으로

1.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죠. 나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은가요?
2.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땠나요?

### ⑤ 암송구절 -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⑥ 자녀와의 나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껴본 경험이 있나요?

1 Chronicles 1:1–4, 27–28

# People are the history. People are the hope

## 1 Opening Question

How did you begin your religious life? What triggered you?

##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Chronicles is a history book written during the Babylonian captivity of Israelites. What will you report if you write a history book? I will probably report an episode first. I think history is about series of events. By the way, those who recorded chronicles do not post events. Chronicles starts by mentioning the people's names.

"Adam, Seth, Enos... And verses 27-28, "Abram, Abraham. The sons of Abraham are Isaac and Ishmael" (v. 1). People's names continue, and from verses 27-28 to "Abram, that is, Abraham," then it takes a breath.

Chronicles does not commence with an event. It starts by bringing up people's names. As the people of Israel recorded anew their history, why did they bring up people in front rather than historical events? The author of Chronicles reports that the center of history is people, not events. Man make history. Those who belong to God create God's events, and declare that the record of those people is at the heart of their history. People are hope.

### ③ Into the Word

1. What does the first verse report in Chronicles? (v. 1)
2. If our name is not yet written in the book of life in Heaven, what do you think you should do first?

### ④ Into our Life

1. People are the history. What history do you think you are making today?
2. To be recorded in God's history book, what kind of person do you think you should be?

### ⑤ Memory Verse - 2 Corinthians 5: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 ⑥ Sharing with your children

Your parents have given you a name and find out what your name means.

## 1 Chronicles 13:8–12

# If you didn't know ... Now you can

## 1 Opening Question

You may have experienced mistakes or failures. How did you react then?

##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When all Israelites made David king, he carried out the first task he had in mind. As soon as he achieved political stability, he undertook the most important thing he had in mind. It was the transfer of the Ark of God. They loaded the Ark of the Covenant at Abinadab's house on a cow-drawn cart. However, when the cows reached a threshing floor, the Ark was about to fall to the ground, and Uzza, son of Abinadab, held it. And God was angry, and Uzzah died.

When the accident occurred, David's plan came to standstill. And unlike Chronicles 6, Chronicles historians leave the work suspended for a while and tell a different story in Chronicles 14. The silence of that empty gap, that is, it was left blank. David would have contemplated on why was God angry?

We also need this question. When things go wrong, you need a pause, a blank time, and the sincerity of finding out why it happened. God is always the one who opens the door. God is the one who always unlocks the necessary enlightenment and paths.

### 3 Into the Word

1. The person who urgently stopped the Ark of the Covenant from falling from the cart was killed. Who was he? (v. 10)
2. Later, David found why it happened. What mistakes were made (1 Chronicles 15:13). Why didn't David think about what is right thing to do in advance? What seems to be the reason?

### 4 Into our Life

1. After making a mistake, did you realize something new?
2. There is a reason why there is no progress in a spiritual life. It's because you think you know it all. What do you need to realize and do in order to make progress?

### 5 Memory Verse -Matthew 6:33

"Bu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Have you ever had a hard time after making a mistake or failure? Can you tell me what you learned at that time?

1 Chronicles 21:15–20

# Happy ending is always open

## 1 Opening Question

There is a saying “a blessing in disguise”. It happens when you are blessed even though your intention went wrong. Have you had this experience?

##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Satan does not just want to leave David alone when he is doing so well. Satan encourages the census, and David falls for Satan's tactics. What David wants is to hold in his hand the number of troops he could come to grips with, God sees it as evil. Eventually, God send the plague to the people, and at last Jerusalem is left at disposal. When the angel is about to strike the sword of disaster at Jerusalem from Araunah's threshing floor, David falls before him.

Satan's scheme seems to be successful. Well, rather it turns out to be a blessing in disguise! What changed God's mind? “I am the one who has sinned and done wrong! But these people are as innocent as sheep—what have they done? O Lord my God, let your anger fall against me and my family, but do not destroy your people.” (v. 17)

David's sincere request to divert God's anger to him moves God's heart. You can sin. You can make mistakes. In that situation, you need something you can stand on. I wish we could confess like David did. Faithful confession always neutralizes Satan's schemes. Happy ending is always open.



### 3 Into the Word

1. God allows the angel to send a plague to people, and then changes His mind when He sees 70,000 people perish. God has this aspect ... Does your feeling for God change?
2. Davis has committed evil tempted by Satan, but David repents and says that he and his household will pay the penalty. What is David like?

### 4 Into our Life

1. If you make a mistake or violate the law, are you a person who admits your fault? Are you willing to pay the price? If not, why is that?
2. If you know that Satan's incentive made you fall, would it be relatively tolerant and clear that you are ready to admit wrong? Why?

### 5 Memory Verse - James 1:14-15

"But each person is tempted when he is lured and enticed by his own desire. Then desire when it has conceived gives birth to sin, and sin when it is fully grown brings forth death."

###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It takes courage to admit your fault, right? Your conscience is uncomfortable when you hide the wrong. Have you ever experienced peace after acknowledging it?

2 Chronicles 5:11–14

## God's presence completes construction

### 1 Opening Question

If things go better than you planned and tried, have you ever realized that God did it!?

###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Solomon's temple construction was over. And the furnishings prepared by his father, David, who had longed for the temple building, were brought into the temple. Finally, Solomon devoted himself to the ceremony of bringing the ark of the covenant of Jehovah, which was kept in the city of David. As all the leaders and people watched, the Levites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on their shoulders and placed it beneath the wings of the Cherubim in the Most Holy Place, blowing a trumpet and the sound of thanksgiving and praise echoed in the sky. "The Lord is good, and His kindness is eternal."

The building of the temple now seemed to have been completed. But it wasn't over yet. Soon, the temple was filled with clouds that symbolized God's presence, and everyone experienced God's glory.

The temple is not a building. The temple is completed when the glory of God comes. "All have sinned, and have not come to the glory of God" (Romans 3:23). When you experience the glory of God, the light of God approaches you with warmth, the frozen

things begin to melt and your heart that has lost the light will come alive again. This is the true beauty of the finished temple.

### ③ Into the Word

1. What did God fill the temple with? (v. 14)
2. When God filled the completed temple with a cloud of glory, how would be God's heart?

### ④ Into our Life

1. God is good! How much do you think you know such a good God?
2. Have you ever sensed the glory of God? How was it?

### ⑤ Memory Verse - Romans 3:23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 ⑥ Sharing with your children

God is invisible, but have you ever felt that there is a God?

## 전염병과 교회, 역사에서 배운다

글쓴이: 이용연 목사(미드허드슨 한인연합감리교회)

### 시작하는 말

연합감리교회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시작된 이후, 교회 안에서의 공적 예배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1, 2차 세계대전이나 경제공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는 문을 닫고 말았다.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개인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2004년 인도네시아와 2011년 일본의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재해가 우상숭배와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재난에 대처해야 하는지 역사 속의 전염병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흑사병과 중세교회

14세기에 창궐하여 7,500만~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은 중세의 사회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시아 대평원의 쥐벼룩에서 발병한 흑사병은 1347년 10월 이탈리아 제노아 선박들이 시칠리아에 도착하면서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 이듬해, 남부 독일과 영국 전역으로 확산된 흑사병에 의해 1353년까지 6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천5백만 명이 희생되었다.

중세 사람들은 흑사병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하였고, 파손된

혈관에서 피부 아래로 피가 흘러나와 생기는 출혈 반점을 ‘하나님의 징표(God’s Mark)’로 여겼다.

중세 교회는 흑사병을 퇴치하기 위해 많은 미신과 주술을 만들어냈으며, 이와 함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고행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채찍질 고행단(Falcellants)’이 출현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유발시켰는데,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을 내어,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세 교회는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하며,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 연옥에 머무르는 시간을 단축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 면죄부를 사게 되었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면죄부를 팔 수 있었던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했기 때문이었다.



1411년 토겐부르크 성서에 그려진 흑사병 환자. 사진, 위키백과.

## 흑사병과 종교개혁자들

종교 개혁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흑사병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1505년 루터(Luther)는 흑사병으로 동생 하인츠와 바이트를 잃었고, 1527년 비텐베르크에서는 또다시 흑사병이 발병하여 많은 사람이 피난을 떠나야 했다.

루터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소책자를 출판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흑사병을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루터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만일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라고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덧붙여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나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흑사병이 확산될 무렵, 스위스의 쾰링글리(Zwingli)는 매우 바쁜 일정 가운데 친구들의 권유로 몇 주간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자들이 병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자신의 휴식을 멈추고, 신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며, 낙심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그러다가 그도 1519년 9월 말 흑사병에 전염되어 10월경 죽음의 위기를 맞았다가 기적적으로 11월 중순에 회복되었다.

그는 투병 중에 ‘역병가(Plague Song)’라는 노래를 지었다. 그의 ‘역병가’는 재난 속에서 고행이 아닌 신실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생생한 간증이다.

## 질병과 웨슬리

1700년대에 이르러, 흑사병은 유럽 사회에서 거의 사라졌다. 유럽 사람들의 약 60% 정도가 항체가 생겨, 자가면역을 통해 흑사병을 이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700년대의 영국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동력과 다양한 기계의 발명으로 급속하게 경제적, 사회적 발전 및 변화를 가져왔다. 즉, 산업혁명의 변혁기를 맞이한 것이다.

사람들은 더 좋은 직장을 찾아 도시로 몰려왔고, 그에 따라 술 취함, 도박, 도둑질, 매춘, 자살로 인한 사회 병폐 현상도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3평(약 10m<sup>2</sup>) 정도 되는 작은방에 살았고, 화장실이나 부엌은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하수도가 없어 하수는 거리로 흘러내렸다. 열악한 근로 환경과 극도로 취약한 위생은 티부스(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을 발병시켰다.

당시 상류층의 평균수명은 35-38세였고, 노동자의 평균 수명은 15-17세였다. 어린 이들은 4-5살 때부터 탄광에 들어가 고된 노동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하였다.

웨슬리(Wesley)가 감리교회를 창시한 훌륭한 영성가이며 설교가였음은 다들 알고 있지만, 그가 영국에서 최초로 '정전기 치료 기계(static electricity machine)'를 만든 사람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웨슬리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런던 전역에 4대의 '정전기 치료 기계'를 제공했다. 사진, 런던의 웨슬리 교회 이사회.





Photo by Klara Avsenik on Unsplash

웨슬리는 전기를 통해 실명, 청각 장애, 통풍, 나병, 두통, 치통, 복통, 관절염 등과 같은 50여 가지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치료 기계를 고안하여 제작하였고, 매번 50회, 심지어 수백 번의 작은 전기 충격을 통해 치료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1747년 그는 쉽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내용을 기록한 <기초 의학(Primitive Physic)>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그의 책은 ‘간단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900가지 치료법과 288개의 통증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최초의 ‘무료 병원(free clinic)’을 개설했고, 냉수욕, 온열 찜질, 허브차, 따뜻한 레모네이드차를 비롯한 위생 진료 등 자 가면역을 통한 질병 치유가 무엇보다 효과적이라고 믿었다.

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웨슬리는 치료법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했다.

예를 들어, 결핵의 경우에는 최우선 치료법이 ‘차가운 목욕’이다. 차가운 목욕 치료법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물만 마시고, 흰 빵만 먹도록 권고한다. 그리고 나서, 설탕과 사탕 그리고 우유와 차를 마시게 하는데, 이마저 실패하면 우유와 맥주, 담쟁이 잎, 생강차 등을 마시게 한다.

웨슬리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와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 건강한 작업 환경과 더불어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고기보다 야채를 더 많이 섭취하도록 권했다.

웨슬리는 또한 바른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신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주변 사람들과 양질의 사회적 상호 교제를 하라고 권장했다.

웨슬리는 질병이나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로만 이해하지 않았다. 그는



미신이나 맹신을 거부하고 의학의 전문성을 인정했다.

### **코로나19와 현대교회**

전염병이나 재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하는데,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정죄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한 지역에 기독교를 탄압하는 세력이 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드러내시려고 벌을 주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염병이나 재난 등을 어떤 특정 집단이나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과 같이 재난의 상황에서는 다른 공동체나 다른 인종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전염병과 같은 위기는 그 시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흑사병은 르네상스와 같은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추구하는 낙관주의를 가져왔고, 중세에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개신교회를 탄생시켰으며, 18세기에는 영국 국교회에서 감리교회를 탄생시키기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중세 사회와 교회를 바꾸어 놓았듯이, 2020년 코로나19도 교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가 성소수자 이슈로 인한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는 연합감리교회를 어떠한 교회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지, 대면 예배가 취소되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현 상황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 형태와 교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

\*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615-742-5470 또는 [newsdesk@umnews.org](mailto:newsdesk@umnews.org)로 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와 재택근무 그리고 나의 수감 시절

글쓴이: 김응선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김응선 목사. 사진, 케이트 배리, 연합감리교회.

거의 40년 전, 나는 뒤쪽의 창은 덮개로 가려져 있어 밖을 볼 수 없고, 앞쪽은 교도관이 감시할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는 0.75평의 조그만 독방에 갇혀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나에게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매일 아침 나는 5시쯤 일어나 팔굽혀펴기를 하고, 조그만 방을 청소한 후, 책을 읽으며 아침 배식을 기다렸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나에게 허락된 30분의 운동 시간을 위해 교도관이 데리러 올 때까지 다시 책을 읽었다. 교도소의 마당에는 그와 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갇혀 있던 독방과 마당을 오갈 때, 또는 접견을 위해 나설 때도, 나는 도중에 마주친 누구에게도 눈인사조차 나눌 수 없었다.

그들에게 아마도 나는 다른 재소자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운동이 끝나면, 나는 독방으로 돌아갔다. 30분의 운동 시간은 누구도 만날 수 없었고,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다.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나는 계절의 변화를 보고 느낄 수 있었으며, 0.75평 너머를 바라볼 수 있었다. 흙을 밟고 만지기도 하고, 구름 낀 하늘도 보며,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기도 했다.

한 달에 딱 한 장의 봉합 엽서를 가족들에게 보낼 수 있었던 나는 되도록 작은 글씨로 봉합 엽서의 자투리까지 빼곡하게 채웠다. 나에게서는 한 달에 한 번,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딱 10분간의 면회가 허락되었다.

이 지점에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에 그리고 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할지 모르겠다. 전두환 독재 정권이 다스리던 1983년의 한국에서 나는 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었다.

나는 2020년 미국에서 다시 내가 감옥에 있을 때처럼 느끼며, 행동한다.

나는 5시 30분에 일어난다. 나는 나의 작은 아파트의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후,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 약 50분 정도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감옥에서보다는 제법 긴 시간이다. 그러고는 서둘러 7시가 되기 전에 아파트로 돌아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기사를 쓰거나 뉴스거리를 살펴본다. 특히,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한인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체크한다.

나의 작은 아파트는 12걸음이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갈 수 있는 크기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 작은 공간에서 나의 재택근무에 가장 큰 적은 바로 고립, 분리 그리고 인간적 접촉의 결여다.

나는 아날로그 세대다.

한국의 감옥에서 작은 독방에 갇혀있었을 때도 외로움은 느꼈지만, 나는 기가 죽지 않았다. 오히려 조국의 민주화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의 나는 자유가 있음에도 또다시 미국의 작은 아파트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그때와 정반대로 지금의 나는 이 사태가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으며,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사회적 거리두기뿐인 현실에 기가 죽어 있다.

우리는 나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것은 두려움과 실망감이다.

나는 사람을 좋아한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웃으며 인사하고 농담도 주고받는다. 그러나 요즘 나는 밖으로 나갈 때면, 매우 조심하게 행동하고, 거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면 괜히 불안하다. 그래서 때로는 건너지 않아야 할 길도 건너곤 한다. 나는 무려 33년 동안 살아온 이 땅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 글을 더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

나는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자녀들과 통화하고, 형제와 친구들과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소식을 들을 수만 있으면 그깟 외로움은 견딜 수 있다.

나는 내 사무실을 좋아하고, 직장 동료들과 우정을 나누고, 동역하는 것을 좋아한

다. 비록 그들을 만날 수 없고, 직장으로 출근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줌(Zoom)을 통해 때로는 버퍼링으로 그들의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회의를 하더라도,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다.

작은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24시간을 지내는 것은 힘들고 때로는 지겹다. 그러나 이것도 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런 시간을 이겨내야 하는 시기이다. 그렇지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3월 26일 NBC 뉴스는 지난 한 주 동안 미국에서 아시안들을 향한 혐오 범죄가 650건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나의 아시안 형제자매들도 코로나19를 두려워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에 불필요한 두려움과 좌절을 더 해서 느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 모두의 적인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 모두 단합해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 바이러스에 인종과 국적이 있는가?

이 나라가 영적으로 너무 작아져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코로나19보다 작은가? 여러분은 코로나19보다 하찮은 존재인가? 미국이 코로나19보다도 형편없는가?

연합감리교회 총회인종관계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성명서에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범해지는 실질적인 인종차별적 언사와 생각 그리고 행동에 가담하지 않으며, 그들을 위해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아시안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이민자였으며, 예수님과 그의 가족이 난민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코로나19보다 크고 강한 존재라고 믿는다.

미국과 미국 사람들은 보다 나은 나라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나라에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최근 나는 뉴욕의 후러싱제일 연합감리교회(담임 김정호 목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이민자들의 교회인 이 교회의 교인들이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의 공동체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의 실천이 탄력을 받아 지속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으로 대유행 병을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소독된 마스크를 노인들의 생활공간인 사파이어 재활원과 푸리싱 노인 아파트에 전달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위협의 한복판에서도 우리 주위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나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지만 내가 믿는 기독교의 성경에 따르면 예수께서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에베소서 2:14, 개역개정)

나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뿐 아니라, 우리의 외국인 혐오증과 인종차별의 병도 함께 고쳐주시길 기도한다.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 외출 자제령이 수감 생활만큼 힘든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 대답은 “어느 면에서는”이다.

나는 2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수감된 지 8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후에 특별사면 되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민주적인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민주화 공로자로 인정받았다.

나는 매우 낙관적이다. 나는 이 따분하고 지겨운 외출 자제령과 재택근무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우리가 모두 협력하여 코로나19를 이겨냈다고 서로를 인정하며 칭찬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 믿는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2, 개역개정)

나는 여러분과 내가 외출 자제령에서 벗어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밖으로 뛰어나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두려움과 망설임 없이 서로를 얼싸안고, 부둥켜안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

평화/샬롬!

---

\*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615-742-5470 또는 [newsdesk@umnews.org](mailto:newsdesk@umnews.org) 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19의 위기에서도 교회가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들

글쓴이: 오천의



사진, 에던 후퍼, 언스플레쉬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인해 모든 세상이 변하였다. 사람들이 근무하는 방식도 직장이 아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고, 식료품점의 풍경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장을 보아야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방식도 음식을 싸서 집으로 가서 먹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변하였다.

교회 역시 모든 것이 변하였다. 주정부에 따라 외출 금지령과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현재로서 서로 만나 예배를 함께 드리거나 예배 후 식사를 함께하거나, 자녀들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모임을 할 수 없다. 심지어는 병원 심방이나 요양원 심방조차 갈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온라인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선교를 하는 방법과 지역사회를 돕는 방법도 그 상황에 맞게 변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19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어 본다.

## 1. 수제 마스크

미국 내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뉴스만큼 많이 보도되는 뉴스 중의 하나가 마스크 부족 뉴스이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의료계라든지 일반인들 사이에서 마스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현실이 교회에게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최근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인한 마스크 부족 현상이 교회들에게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록 예배가 멈추어진 예배당에서 이웃들에 대한 사랑은 멈추어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인천에 있는 백송교회에서는 예배가 사라진 교회당에 재봉틀 5대를 설치하고 담임목사, 부교역자, 교인들이 함께 수제 마스크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누어 준다.

미국 내, 한인연합감리교회 중에서 지난 20일 플러싱 한인연합감리교회(김정호 목사)는 교인들이 정성스레 만든 수제 마스크를 지역사회의 요양원 직원들에게 기부했다. 교인들 중 사업장에 있는 천을 구하고 교인들의 재봉틀을 이용해서 수제 마스크를 만들고 소독과정을 거쳐서 교회 주변의 요양원에 기증하였다.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서 지역 요양원이나 병원에 기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수제 마스크는 질병 예방 의료용 개인 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수제 마스크는 병원의 방문자가 쓰거나, 코로나바이러스 19를 직접 치료하지 않고 전염 위험이 낮은 간병인이 쓰거나, 주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19 환자가 쓰거나, 최전선의 의료진들이 N95 마스크를 추가 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먼저 지역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수제 마스크를 기부를 받는지 알아본다.
- 최근 병원에서 받아들인 수제 마스크 양식을 따라 만든다.
- 수제 마스크 만들기 비디오를 따라서 마스크를 만들 수 있다.

## 2. 식료품 배달

많은 연합감리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방법 중 하나가 푸드팬트리를 운영하는 것이다. 교인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식료품을 기부받아서 저소득층의 이웃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매디슨 제일연합감리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인해 자택 대기령이 내려진 현재 상황을 지역사회를 섬기는 기회로 삼았다.

위스콘신주 매디슨 제일연합감리교회는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하고, 주정부에서 자택 대기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저소득층 이웃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저소득층 이웃을 직접 찾아가 식료품을 배달하는 응급 식료품 배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특히 이 배달 서비스는 코로나바이러스 19 때문에 혹은 개인 건강 때문에 집 밖을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루어진다.

## 3. 손 세정제

지난 3월 11일, 뉴욕에 한 철물점에서는 손 세정제가 799달러에 판매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19가 발생한 후, 마스크와 함께 품귀현상을 빚는 품목이 바로 손 세정제이다. 이러한 품귀 현상 속에서 일리노이주 위키건의 뉴에비 연합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길 기회를 보았다. 세계보건기구는 손 세정제를 만들기 위한 양식을 따라 손 세정제를 만드는 유튜브 비디오를 발견하고, 교회 이름으로 손 세정제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무료로 나누어주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웃 교회와 연합으로 손 세정제를 만들어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다.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19를 예방하는 방법은 손을 2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는 것이지만, 물과 비누가 여의치 않을 때, 손 세정제를 사용해서 손을 씻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센터(CDC)에 따르면, 알코올로 만든 손 세정제의 경우, 적어도 60% 이상 알코올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헌혈 운동

코로나바이러스 19의 위협과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사람들이 헌혈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미국 적십자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19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약 1,500여 건의 헌혈 행사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약 46,000여 건의 헌혈 기부를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미국 적십자의 혈액 재고량은 위험 수준에 있다고 한다.

미국 적십자는 대부분 학교, 대학교, 교회 등의 기관들의 헌혈 행사에서 많은 수혈을 받았는데,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사람들이 헌혈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혈액 부족 상황에서, 교회는 지역사회를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교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교회에서 헌혈 행사를 가지는 것이다. 테네시주 놀랜스빌 제일연합감리교회는 지난 3월 12일 한차례 헌혈 행사를 교회에서 가졌고, 모든 시간대의 헌혈 예약이 가득 찼다. 2초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연합감리교회가 헌혈 행사를 주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물론 미국 적십자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관리하에, 미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안내서를 따르며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기에 안전하게 헌혈을 할 수 있다.

---

\* 오천의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coh@umcom.org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 MISSIONARY OF THE MONTH

Afful, Innocent

Advance : # 3021967

Country : **Congo, (Democratic Republic)**

Serving At : **Churches of Christ in Congo**

Home Country : **Ghana, Africa**



Innocent P. Afful is a missionary with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erving as coordinator for orphans and vulnerable children for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Congo, based in Kinshasa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Congo is an ecumenical council comprised of 74 member denominations, including The United Methodist Church, representing 31 million believers, 320,000 congregations, 28,720 schools, and 48 colleges. It relates to 60 percent of the medical centers in the DRC. Innocent's work is focused in the Diakoinia Department, which serves the most vulnerable, including thousands of children, many orphaned or jeopardized through civil conflict. There are some 18,000 children in distress in the Kinshasa area alone.

Innocent is a native of Ghana and has worked in social ministry both in his own country and in Liberia and Sierra Leone. He is a member of the Rev. J.C. Mensah Memorial Methodist Church in Accra. He studied at institutions in Ghana and Sierra Leone. He was at one time a United Methodist missionary of hope and from 1999 through 2013 was employed by the James One 27 Vocational Training Project in Mumford, Ghana, a US-based nonprofit corporation.

“I started my faith journey at Sunday school classes at my local church, and became a teacher and an organizer of the youth volunteers in mission. I later became a community development worker with local churches.

“At the tender age of 10, I can remember I was serving at church sweeping and dusting the church pews while those of my age were playing in the field. By design as I grew up, the only thing I wanted to do was to serve and bring happiness to those who grieve.”

Responding later to God’s question, “whom shall I send?” (Isaiah 6:8), he served as a missionary of hope and as a vocational skills instructor. He helped to establish training centers in rural and urban areas to reduce school dropouts and assist teenage mothers to become more self-sustainable.

“I have been transformed, and I say this to the glory of God,” he states.

Innocent and his wife, Wilhemina M. Afful, have three children, Charity and Ephraim, both teenagers, and Jacobsen, born in 2009.

**Contact Information : [iafful@umcmmission.org](mailto:iafful@umcmmissi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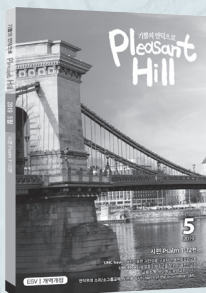
#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 35 per month
20권		매월 \$ 70 per month
30권		매월 \$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 kumcd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10 ☐\$20 ☐\$30 ☐\$50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이승필,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헨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스산제일연합감리교회(조형,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옥,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기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리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임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엔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펠리츠연합감리교회(신병욱,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8-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홍삼열, 408-295-4161)  
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새열매교회(남기정, 650-773-8589)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언약교회(구진모,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권혁인,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현,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279-1214)  
월셔연합감리교회(신영각,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함무근, 323-257-7713)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가하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한동수,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양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유혁재,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813-907-5815)  
포트피어스한인선교감리교회(김선용, 772-353-0931)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김세환,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이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글렌브룩한인연합감리교회(고은영, 847-205-9642)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전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턴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애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재,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I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균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락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선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통재, 620-231-2540)

•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대섭,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우,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오섭, 667-206-4162)  
워싱턴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웅, 978-470-0621)  
비전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 • Missouri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일교회(최영원,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진, 603-430-2929)

#### • New Jersey (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조영진, 732-613-4930)  
그레이스벤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저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성,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웅,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벳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 New Mexico (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 New York (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백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김영훈, 718-796-5600)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니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이원택, 631-499-1260)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박재웅, 347-377-0329)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이용연, 845-463-0027)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김치호, 718-332-3270)  
스테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희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필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기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텔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애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박성순, 215-542-5686)  
필라델피아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전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 **Texas (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상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브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루가연합감리교회(한장택,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오한, 817-657-4559)  
윌리엄스메모리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이진희,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주요한,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r'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턴사목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턴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싱턴한인교회(김한성, 703-448-1131)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64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 (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현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김찬국,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GAUM (괌)**

관한인선교교회(김택수)

•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 성경진도표

2020/01			2020/02			2020/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골로새서	1	01	사사기	1	01	사무엘상	주일
02		2	02		주일	02		1
03		3	03		2	03		2
04		4	04		3	04		3
05		주일	05		4	05		4-5
06	갈라디아서	1	06		5	06		6-7
07		2	07		6	07		8
08		3	08		7	08		주일
09		4	09		주일	09		9
10		5	10		8	10		10
11		6	11		9	11		11
12		주일	12		10	12		12
13	에베소서	1	13		11	13		13
14		2	14		12	14		14
15		3	15		13	15		주일
16		4	16		주일	16		15
17		5	17		14	17		16
18		6	18		15	18		17
19		주일	19		16	19		18
20	빌립보서	1	20		17	20		19
21		2	21		18	21		20
22		3	22		19	22		주일
23		4	23		주일	23		21-22
24	데살로니가전서	1	24		20	24		23
25		2	25		21	25		24
26		주일	26	룻기	1	26		25
27		3	27		2	27		26
28		4	28		3	28		27:1-28:2
29		5	29		4	29		주일
30	데살로니가후서	1-2				30		28:3-29:11
31		3				31		30-31

2020/04			2020/05			2020/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사무엘하	1	01	다니엘	1	01	욥기	1
02		2	02		2	02		2
03		3	03		주일	03		3-4
04		4-5	04		3	04		5-6
05		고난주일	05		4	05		7-8
06	마태	21	06		5	06		9-10
07	마태	22	07		6	07		주일
08	마태	23	08		7	08		11-13
09	마태	26	09		8	09		14-16
10	마태	27	10		주일	10		17-19
11	이사야	53	11		9	11		20-21
12		부활주일	12		10	12		22
13	사무엘하	6	13		11	13		23-24
14		7-8	14		12	14		주일
15		9-10	15	호세아	1	15		25
16		11	16		2	16		26
17		12	17		주일	17		27
18		13	18		3	18		28
19		주일	19		4	19		29
20		14	20		5	20		30
21		15	21		6	21		주일
22		16	22		7	22		31
23		17	23		8	23		32
24		18	24		주일	24		33
25		19	25		9	25		34
26		주일	26		10	26		35-36
27		20-21	27		11	27		37-38
28		22	28		12	28		주일
29		23	29		13	29		39-40
30		24	30		14	30		41-42
			31		주일			

2020/07			2020/08			2020/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역대상	1	01	역대하	6	01	사도행전	1
02		2	02		주일	02		2
03		3	03		7	03		3
04		4-5	04		8-9	04		4
05		주일	05		10-11	05		5
06		6	06		12	06		주일
07		7-8	07		13	07		6-7
08		9	08		14	08		8
09		10	09		주일	09		9
10		11	10		15	10		10
11		12	11		16	11		11
12		주일	12		17	12		12
13		13-14	13		18-19	13		주일
14		15	14		20	14		13
15		16	15		21-22	15		14
16		17	16		주일	16		15
17		18-19	17		23	17		16
18		20-21	18		24	18		17
19		주일	19		25	19		18
20		22-23	20		26	20		주일
21		24	21		27-28	21		19
22		25	22		29	22		20
23		26	23		주일	23		21
24		27-28	24		30	24		22
25		29	25		31	25		23
26		주일	26		32	26		24
27	역대하	1	27		33	27		주일
28		2	28		34	28		25-26
29		3	29		35	29		27
30		4	30		주일	30		28
31		5	31		36			

2020/10			2020/11			2020/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예레미야	1	01	예레미야	주일	01	요한복음	1:1-18
02		2	02		30	02		1:19-51
03		3	03		31	03		2
04		주일	04		32	04		3
05		4	05		33	05		4
06		5	06		34	06		주일
07		6	07		35	07		5
08		7	08		주일	08		6
09		8-9	09		36	09		7
10		10	10		37	10		8
11		주일	11		38	11		9
12		11	12		39	12		10
13		12	13		40-41	13		주일
14		13	14		42	14		11
15		14	15		주일	15		12
16		15	16		43	16		13
17		16	17		44-45	17		14
18		주일	18		46-47	18		15
19		17	19		48	19		16
20		18	20		49	20		주일
21		19-20	21		50	21		C-1
22		21	22		주일	22		C-2
23		22	23		51	23		C-3
24		23	24		52	24		C-4
25		주일	25	예레미야애가	1	25		C-5
26		24	26		2	26		17
27		25	27		3	27		주일
28		26	28		4	28		18
29		27	29		주일	29		19
30		28	30		5	30		20
31		29				31		21



##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김응선(총회 공보부), 오천의(총회 공보부)
-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김영실
- ❖ 목회자 기획위원 강현식, 권혁인, 김기천, 김다위, 도은배, 배혁, 서준석, 오치용, 이광훈, 조선형, 한명훈, 류재덕
-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하금숙, 조윤희
-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 함께 하신 분들

####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류재덕 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CA)

#### ❖ 주일 칼럼

김지성 목사 (글로벌 선교교회, CA)

박상춘 목사 (앤아버대학총대교회, MI)

박순탁 목사 (섬기는교회, NJ)

정영민 목사 (포도원교회, CA)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